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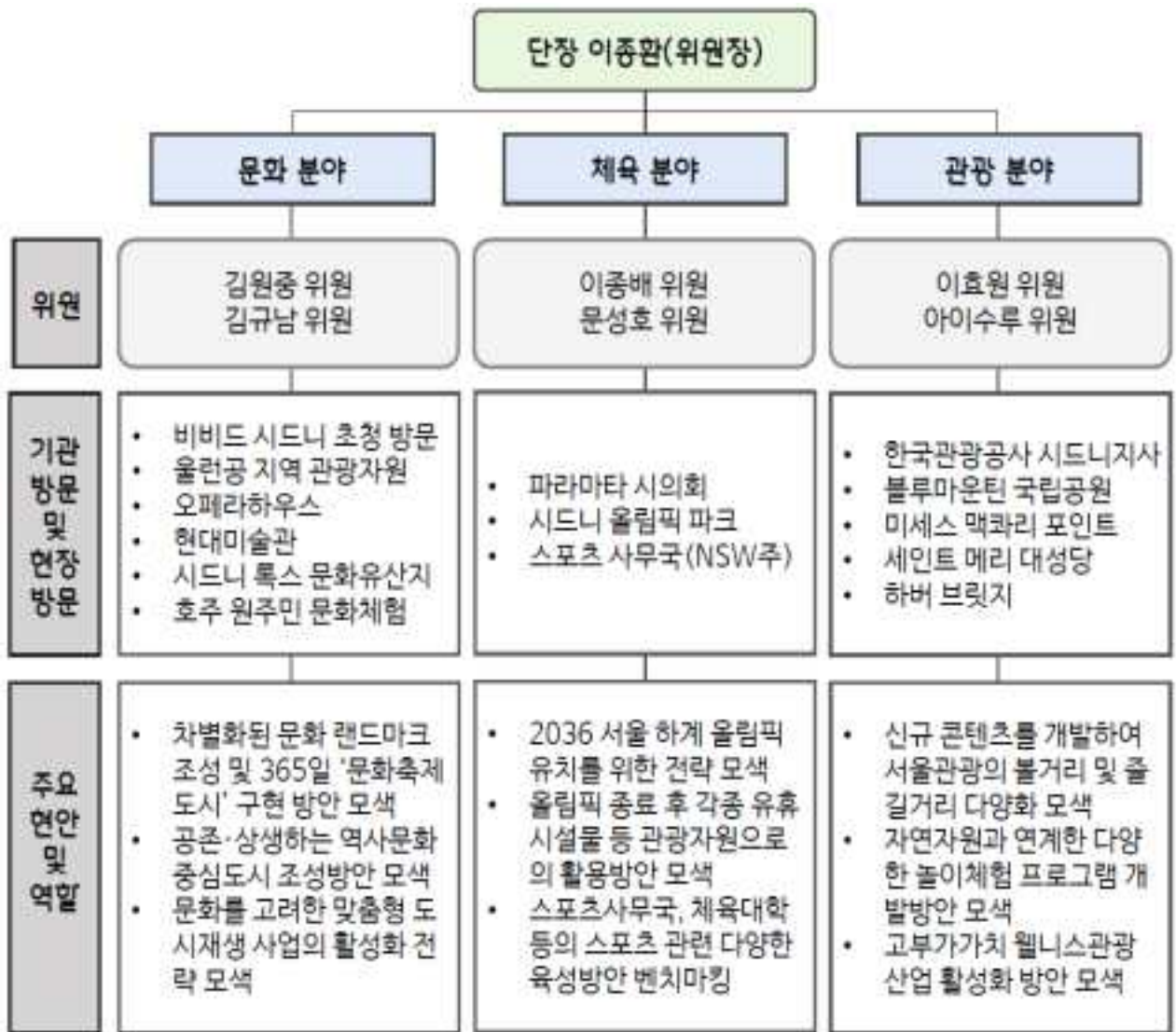
현장속으로
시민결연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자	기관명	활동설명
5/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내 산악등반코스 등 현장시설 방문(09:00-13:00) ·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 지사 방문(15:00-16:00)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마운틴 산악등반코스 등 현장시설 방문 - 서울도심등산관광 활성화와 관광약자시설 등 운영사례 비교 <p><기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지사 방문 - 서울과 시드니 관광 현황 조사
5/2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dney Olympic Park (09:30-11:00) · NSW주 스포츠사무국 (14:00-16:00) 	<p><기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올림픽 파크 (Sydney Olympic Park) 방문 -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벤치마킹 - 체육시설의 효과적 활용사례 및 문화행사 활용방안 비교 검토 <p><기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사무국(Office of Sport) 방문 - 호주 스포츠 사무국의 운영 형태 및 재원확보 방안
5/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y of Parramatta Council(09:30-10:30) ·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방문(유칼립투스 숲 등 에코 및 생태관광) (14:00-17:00) 	<p><기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파라미타 시의회 방문 - 문화·체육관광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관련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파악하여 시사점 등을 활용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방문 - 유칼립투스 숲 등 에코 및 생태관광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 비교 및 활용

일자	방문기관	업무내용
5/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10:00-12:00) • 시드니 록스 문화유산지 방문(14:00-16:00) • Vivid Sydney 2023 초청방문(18:00-20:00)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현대미술관 방문 - 우수 미술관의 전시 및 운영 사례 조사(신규 전시 등 다양화에 활용도 제고)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록스 역사유산 탐방 - 호주 현지 문화예술 공간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p><기관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비드 시드니 행사 초청방문 - 시드니 대표축제로 성공요인 모델로 서울의 대표축제 육성에 벤치마킹
5/2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행사 참여 (10:00-12:00) • 오페라하우스 방문 (14:00-15:00) •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세인트 메리 대성당 방문 (15:00-18:00)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원주민 문화체험 - 지역 맞춤형 축제모형 개발, 자치구별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 등과 비교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방문 (Sydney Opera House) -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신규 콘서트홀 건립 추진의 모범 사례로 활용 <p><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등 시드니 대표 랜드마크 방문 - ‘명소-지역-축제’ 를 연계 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유사한 서울시 문화축제사업과 비교

1.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지사

[기관방문]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한국관광공사(KTO) 해외 지사 32개소 중 유일한 호주 소재 기관으로 한국 관광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활동

- 각종 미디어·박람회·SNS 등을 통해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
- 여행 박람회, 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 참가, 지역 방송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한국의 주요 소식이나 관광 정보를 알리고 전자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임

❖ 홈페이지: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KOO/sydney.jsp>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eKorea

※ 13,071명 팔로워, 12,540명 좋아요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tourismanz

※ 1,968명 팔로워, 125개 게시물 (2021년 9월 개설)



□ 방문일시 : '23. 05. 23. (화) 15:30 ~ 16:30

□ 방문장소 : Suite 1807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세계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도시 서울' 을 목표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글로벌 TOP5 도시' 로 육성할 계획임.

- 코로나19 완화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관광공사

직접 방문을 통한 서울의 대외 이미지 실태와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도시브랜딩 및 관광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호주 관광업계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 관광 진흥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관광공사 시드니 지사와의 교류를 통해 호주에 서울 관광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협력 체계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면 답 자 : 한여옥 시드니지사장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기관소개

- KTO 시드니 지사는 1979년에 11번째 지사로 개소되어 올해로 44년 되었음. 지사의 역할은 시장 맞춤형 마케팅으로 외래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현지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사무실 내에 홍보 공간을 운영하기 보다는 현지의 관광 업계와의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고 있음.

▶ 질의답변

Q.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평균 3일 정도를 체류하는데 스포츠 관광객은 평균 15일 가량을 체류한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을 위해서는 스포츠 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 실제로 호주와 한국은 장거리로 단기 체류보다는 장기 체류가 관광 상품으로서 보다 적합하다.

Q. 일본정부관광국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시대별 컨셉이 구체적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 프로그램은 서울, 경주, 부산, 순천, 여수 등 단순하게 나열되어 상품화한 점이 아쉽다.

A.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저희 기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방한 관광이 상품화된 기간이 짧았고 핵심 콘셉트가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Q. 일본관광공사와 연계하여 개발한 상품의 경우 (원래 일본 상품이었던 것을) 2/3는 일본, 1/3는 한국에 머물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 A. 물론 한국만 단독으로 파는 상품들도 많다. 다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자원과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일본 관광공사가 가진 노하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현재 한국 상품의 평균 체류일은 1~2주가량이다.
- Q. 관광 도·소매상 네트워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A. 도매상의 수는 매우 많고, 관광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에이전트는 약 480여곳이 있다.
- Q.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가 다양하다. 또한 한국의 국제 관광 상품은 오픈형(외국인 포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이 많다. 관광 공사를 통해 도·소매상에게 서울시 상품과 계획된 일정을 소개하고 싶다.
- A.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첫째,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이 최단 8개월 이전, 최장 1년 6개월 이전으로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는 2년 또는 2년 반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공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관광객을 인솔하고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북한산 트래킹이나 사이클링을 진행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여행사나 가이드가 부족하다. 국내 관광 활성화만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힘들게 외국 손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 Q. 서울시 체육회는 340명의 스포츠 생활체육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 중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 중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해보겠다. 호주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종목이 있는가?
- A. 사이클링을 많이 선호한다. 호주는 원체 아웃도어 인구가 많아 운동 동호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
- Q.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복권기금으로 건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제2세종문화회관에 접목시켜보고 싶다. 시민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오페라 하우스 개관식 공연 티켓을 제공했는지 궁금하다.
- A.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 Q. 아트 페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비엔날레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 정해진 장소에서 프로그램만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지역 상품과 연계하는 것은 어떠한가? 미술 작품 구입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 A. 호주는 역사가 짧은 편이고 원주민 문화가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대

미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상품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알음알음 오시는 경우가 많다.

Q.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측과 함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사대문 안 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국내 미술관 투어와도 연계하는 것이다.

A.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프리즈도 관심이 있었지만 티켓 오픈이 늦어져서 활용하지 못했다. 가구 박물관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곳 또한 전문 인력 문제가 있다. 예술적 스토리를 영어로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Q. 조직위나 미술관 특에 그러한 역량이 있는 도슨트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큐레이터 중에서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고 모집 가능한 도슨트를 활용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A. 감사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Q. 호주 국민들이 선호하는 스포츠나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땅이 넓기 때문에 테니스, 축구를 많이 선호하고, 하이킹과 사이클링도 일반적으로 한다. 스포츠 클럽에는 육상과 수영이 많다.

Q.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만한 스포츠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골프라든지.

A. 골프는 호주의 경우 동네마다 구장이 있고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마음대로 칠 수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Q. 일본에는 3, 4일을 있는다면 우리 나라는 1, 2일만 머문다고 하셨다.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일본이 서양에서 갖는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가 가장 크다. 호주 국민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마음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축적되어오면서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세계가 한국의 콘텐츠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Q. 아까 2~3년 전에 계획 가능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프로야구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목이다. 고척돔같은 경우 관광 상품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는데 고려해주길 바란다.

A. 단 하나 표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외래객 유치를 위해서 일정 개수의 표를 마련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Q. 관광업계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다. 관광업자들이 가성비가 낮은 관광상품을 판매하면 호주와 같이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A. 공감한다.

Q. 호주의 의료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이 호주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관광을 전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호주는 의료 서비스가 거의 무료로 가깝고, 성형도 일반화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이다.

Q.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나서 고객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면 좋겠음.

A.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여행사에 요청하면 의견 교류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Q. 호주 국민들이 서울에서 꼭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주요 포인트는 어디인가?

A. 2019년부터 2022년 데이터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기간인 점을 감안하고 한강 공원이나 기타 공원, 사찰, 고궁, 쇼핑, 복합문화공간, 케이팝 관련 공간,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가 인기를 끌었다.

Q. 서울관광재단은 해외 지사가 없지만 지사 설립에 대한 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다. 해외 지사 설립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하는가(방한 관광객 수, 잠재 유치 및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A. KTO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광공사, 관광청들도 각자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 우리의 경우 교통 노선의 존재, 개수, 방한 관광객, 호텔 숙박 체류 일수 등을 검토하여 지사 설립을 할지 검토한다. 잠재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좌석 항공 좌석 수로 볼 것인지, 지역으로 가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등 다방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

Q. 전략 수립 시 주로 참고하는 타국 관광청이 있는가?

A. 영국, 싱가포르, 호주 관광청이 전략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

- Q. 서울관광재단이 KTO 시드니 지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A. 호주의 경우 나라가 크기 때문에 호주 관광청 산하에 8개 주 정부 관광청이 있고, 그 아래에 RTO(지방관광공사)가 따로 있다. 호주 관광청의 경우 KTO와 같이 전체적인 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도매업자와 에이전트, OTA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RTO는 소비자와 가까운 접점에서 지역 프로그램과 신규 관광지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시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 상품 프로그램 티켓 확보와 같은 것이 그 예시이다.
- Q. 사무실 임대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어떠한 방식의 해외 지사 설립을 추천하는가?
- A. 이곳 지사 사무실의 임대 비용은 한 달에 1만 9천달러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 한 달에 5만불이 넘었다.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 우선 지사가 아닌 사무소 개념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한국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법을 검토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각 나라와 도시에서 경험을 쌓고 지사를 설치할지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Q. KTO 시드니 지사의 경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서울관광재단의 경우 해외 지사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서울관광재단에서 KTO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A. 긍정적이다. 성과측정, 투입비용 등 다방면적으로 검토하셔야겠고, 독립 사무실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KTO 본사 국제관광 전략팀 쪽과 협의를 해보시면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기관방문 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호주 관광객 교류 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교류가 급감하기 전까지는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나아가 코로나19가 완화된 2023년 현재 4월 말까지의 통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1.6% 증가한 55,69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한-호 관광객 교류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월)
호주→한국	150,408	153,133	173,218	23,172	3,503	65,502	55,695
한국→호주	301,800	287,990	280,240	53,520	2,060	72,510	-

- 이는 호주 내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호주-미국 간 국제 관계가 개선되어 2019년 대비 직항노선이 2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방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호주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KTO 시드니 지사의 전략 중 하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호주 국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액티비티 위주의 관광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것임.
- 이 중 서울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나 국제 대회 관련 관광 상품의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전에는 계획이 가능해야 하며

경기 티켓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바, 서울시체육회의 네트워크를 KTO에 제공하면 스포츠 경기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KTO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화 관광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1인당 GDP가 6만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BTS 데뷔 10주년 관광, 하이킹 관광, 스키 관광, 아트 페어 관광 등 명확한 콘셉트를 지닌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다만, 스포츠 관련 관광이나 아트 페어 관광과 같이 전문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 분야의 전문성과 외국어 실력을 모두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에 스포츠지도자나 도슨트 중 외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서울시 뉴딜일자리와 서울시민관광 아카데미에서 관광 상품별 외국어 가능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관광재단(STO)는 해외에 설립된 지사가 없는데, 국내 활동만으로는 현지의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해외 지사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 중에 있음.
-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비용 등 상당한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나, 작은 규모의 사무소를 설립하며 적정한 해외 지사 설립지를 미리 모색하는 방안과 KTO 시드니 등 해외 지사로 STO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음.

《 기관 개요 》

❖ 기관소개

- 기관명: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국(SOPA,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 비전: 박동하는 시드니의 녹색 심장(Sydney's beating green heart)
- 설립근거: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법 2001
- 설립배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추진 이후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정 기관으로, 정부(Minister for Planning, Minister for Homes)의 지도를 받음.

※ 조직현황(2022.6.)



- 공원면적: 6.4km² (서울 올림픽공원의 약 4.4배,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의 2배)
- 공간구성: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8만여명 수용), 에이서 아레나(시드니 슈퍼 돐)와 같은 경기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이 있음. 약 2/3의 면적이 잘 보존된 공원 공간으로 이루어짐.

❖ 주요활동

- 시드니 올림픽공원은 공원의 자연 유산, 문화, 오락, 레크레이션, 스포츠 행사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드니의 중심지의 역할을 함.

❖ 홈페이지: www.sydneyolympicpark.com.au / www.sopa.nsw.gov.au

□ 방문일시 : '23. 05. 24. (수) 09:30 ~ 11:00

□ 방문장소 : 5 Olympic Boulevard,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방문목적

- 2036년 하계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행사의 서울시 유치를 위한 해외 전문 체육시설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올림픽 종료 후 각종 유휴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시드니 올림픽공원 관리국의 공원 관리·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시설 및 추진 사업에 참고하고자 함.
- 시드니 올림픽 공원을 참고하여 최근 리모델링 추진 중인 잠실주경기장의 방향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면 답 자 : Fiona Tucker (Manager, Visitor Programs)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Q.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선진화 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오는 침출수 등의 환경 문제는 없는지?
- A. 침출수도 나오고 메탄가스도 나오지만 이것을 재분해하여 3명의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방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Q.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논쟁이 있다. 재생효과가 불분명하다거나 미관상 불편하다든가, 25년정도가 지나면 오염물로 바뀔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호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A. 태양광 시설의 단기적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호주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 Q. 경기가 없을 때 유휴 체육 시설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 A.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콘서트나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Q. 올림픽 공원 운영에 있어 주요 수입원이 무엇인가?

A. 첫번째로 장소 사용에 대한 대관료가 있고, 큰 이벤트를 개최할 때 거둬들이는 돈이 있다.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 1만 곳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 하루에 30달러의 이용료를 받는다.

Q. 올림픽공원의 관리는 주가 직영으로 관리하는지 위탁 형태로 관리하는지?

A. 올림픽 게임 이후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SOPA)가 법규에 의해 설립되었다. 호주는 전형적으로 주 정부 밑에 있는 독립적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주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재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비용은 점차 줄어들고있는 상황이다.

Q.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시설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개선해나간다. 긴급하게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임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Q. 가이드(Julie)분은 원래 선수 활동을 하고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올림픽 공원 관리국에 채용되었다. 이러한 진로 개발이 일반적인가? 양성 과정이 있는가?

A. 일반적으로 코치나 스포츠 심리학쪽으로 활동하고 공원 관리국과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Q. 공원 관리국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A. 적자는 아니다. 자체 수입과 더불어 주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준다. 또 다른 수입원 중 하나는 주경기장(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럭비 경기장)에 민간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를 받는 것이다.

Q. 네이밍 스폰서를 하는 기업은 운영과 전혀 상관 없이 브랜드명만 제공하는 것인가?

A. 회사의 명칭을 붙이는 것 외에도 회사가 해당 경기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스폰서는 3~5년마다 바뀌게 된다. 현재는 Accor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Accor Stadium이라는 이름이지만 2020년까지는 ANZ Stadium이라고 불렀다.

Q.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A. 호주의 분위기상 그러한 민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경기를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Q.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주의하는 부분이 있는가?

A. 주경기장에만 8만여명의 관객이 수용된다. 그래서 출입구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다. 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이다. 주차 공간 또한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되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그렇게 한 시간에 5만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하로 지하철 역을 개통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다. 자전거 길도 다시 만들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보안에 관련하여 기존 CCTV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는데, 특정 단체가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면 경찰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Q. 어떤 국제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A. 2달여 후에 FIFA 여자 월드컵을 개최할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이 모여서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

□ 기관방문 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국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Act 2001”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시드니 올림픽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는 연간 약 1,0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오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개최될 2023 FIFA 여자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콘서트, 스포츠, 오락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그중 서울시 잠실주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ACCOR Stadium)는 8만여 석을 수용하는 주 경기장으로, 럭비 리그 월드컵, T20 월드컵, AFC 아시안컵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음.
-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의 네 모서리에는 긴급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형 나선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 관리국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서울시가 2036년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드러냄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도 ‘2036서울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26년) 중에 있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추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도 인파의 출입, 차량 출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겠음.
- 한편, 시드니 올림픽 공원은 NSW주로부터의 지원금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줄어가는 추세임에도 흑자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역대 올림픽 개최지 중에서도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안으로,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기장은 민간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현 명칭 ‘ACCOR Stadium’), 이러한 방안은 추후 잠실주경기장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겠음.
-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호주의 값비싼 인건비를 고려하여 직원 수를 늘리는 대신 소수의 전문가와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향후 서울시 관내 체육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 추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기관 개요 》

❖ 기관소개

- NSW 스포츠 사무국(Office of Sport)은 NSW 정부에서 체육·건강 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활동적인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함



❖ 주요사업

- **First Lap:** 3~6세의 아이들 및 보호자에게 수영 교습 바우처 \$100를 제공하여 안전 및 생존기술을 가르침.
- **NSW Football Legacy Program:**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7.20.~8.20.) 주최를 위한 1천만 달러 투자 프로그램임.
- **Active Kids:** 재학중인 아동들과 보호자에게 매년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100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건강한 습관을 배양함.
- **Her Sport Her Way:** 여성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여성 친화적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함.
- **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DADAE):** 아버지와 초등학생 딸을 위한 특별 건강 프로그램으로, 뉴캐슬 대학에서 개발되었음.
- 그 외 자동차 경주회 개최 허가증 발급, NSW 인구 건강 조사 실시 등

❖ 주요시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센터, 시드니 국제 승마 센터, 시드니 국제 레가타(조정, 요트 등) 센터, 시드니 국제 사격 센터 등

❖ 홈페이지 : <https://www.sport.nsw.gov.au/>

□ 방문일시 : '23. 05. 24. (화) 14:00 ~ 16:00

□ 방문장소 : Suite 3/6B Figtree Dr,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방문목적

- 호주 주 정부의 체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체육 관련 기관의 사업과 비교·대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시정에 참고하고자 함.
- 시드니의 지역 체육활동 진흥 방안을 탐구하여 최근 범인화된 서울시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역할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함.
- 대도시의 지역 체육 진흥 방안을 탐구하여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면 담 자 : 스포츠 사무국 관계자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Q. 스포츠 사무국의 예산 규모와 구성 비율(NSW주 보조금, 자체수입, 기부금 등)이 궁금하다.
- A. 스포츠사무국은 NSW주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모두 NSW주를 통해 받고 있음. 예를 들어 FIFA 여자 월드컵 레거시 프로그램에 투입된 1천만불 중 500만불은 주 정부에서 왔고 500만불은 자체 수익 사업으로 감당하였음.
- A. 추가적으로 답변하면, 스포츠 사무국에서 1년에 다루는 예산 규모는 4억 2천 400만불이며 주 정부에서 3억 4천500만불을 지원하고 자체 수익으로는 7천 800만불이 발생하였다. 비율로는 5:1정도이다.
- Q.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초·중등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NSW주는 스포츠 클럽을 기반으로 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초·중등 학생의 체육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육청과 스포츠 사무국 중에 어느 쪽이 관장하고 있는가?
- A. NSW주 교육청에서 학교 스포츠를 관리하고 스포츠 사무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중에 Sporting Schoo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Q. 은퇴 후 선수의 진로 프로그램에 많은 궁금증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대표 수준의 운동 선수들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심판이나 코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며,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무슨 단체든 어떤 스포츠이든 유능한 심판은 늘 부족하다.

Q. 서울시에는 24개 서울시청 팀이 있다.(직장운동경기부) 호주와 스포츠 사무국 또한 이런 운영 대표팀이 있는가?

A. 정부에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팀은 없고 모두 순수 민간 단체이다. 다만, 국가대표 레벨로 말하자면 축구, 럭비, 크리켓 등은 한국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소속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스포츠 사무국과 같은 Department인 Institute of Sports에서는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국가대표급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스포츠 사무국은 전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A.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스포츠 사무국은 NSW주에 속해있는 사무국이지만 모든 일은 연방 정부와도 연결되어있다. 주 단위에서 탁월한 인재를 연방 정부에 올려지는 것이다.

Q. DADAE(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 Program)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A. 이 프로그램은 아빠와 딸이 함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뉴캐슬 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사무국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육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 교육이다. 여성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A.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JYxYxf_u-Q0&t=1s

본래는 9주 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영상으로 보신 것은 주말 2박3일 프로그램이다. 추운 산악지역의 리조트에서 캠핑과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여성의 사회적 감성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Q. 모자나 모녀, 부자가 아닌 부녀인 이유가 있는가?

A.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부터 여아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는지를 배워야 하며 아버지가 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Q. First Lap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달라

A. 해당 프로그램은 3~6세의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바우처 사업임.

Q. 한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커졌다. 해당 나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의무사항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정규 커리큘럼에 넣고 체계적이고 필수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인지 원하는 사람에게만 바우처를 주는 것인지?

A. 강압적인 것은 없다. Active Kids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여 아동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체육 시간에 하는 것들은 의무적인 교육 내용이지만 지금 스포츠 사무국의 사업들은 커리큘럼이 들어가있는 것은 아니다.

Q. 바우처 지원에는 소득 제한이 없는가?

A. 6개의 주마다 다를 수 있다. NSW 주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이 바우처를 제공한다.

Q.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세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A. 이전에는 스포츠와 관광이 같이 묶인 적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주지사가 바뀌면서 부서가 분리되었다. 지금 이곳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일만 한다.

Q.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 위원회의 구성원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A. 여성 이사진은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표는 50%이다. 타 주에서는 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멈추겠다는 이야기도 할 만큼 젠더 이슈는 중요한 사안이다.

Q. 시드니 하버를 활용한 수상 스포츠 사업이 있는지?

A. 관광 관련 기관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스포츠 사무국에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다만 민간 클럽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직후 개최되는 세계적인 세일링 요트 대회가 있는데 중고등 학생들도 하버에서 요트 세일링을 즐기고 있다.

Q. 스포츠 사무국은 체육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A. 스포츠 복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원주민 등

일부 소외 계층이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것인가?

A. 그렇다. 주 정부의 편당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임. 한편, NSW Health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NSW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해악성 등을 스포츠를 통해 알리는 프로그램도 있음.

Q. 서울시에는 지역 체육인들을 위한 민간 법정 기관 ‘서울시 체육회’가 있음. 호주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는가?

A. 민간 단체는 없으며 스포츠 사무국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 체육회도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정부 단체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스포츠 사무국은 서울시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NSW주 밑에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단체들에 대한 정책이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태가 정부일 뿐이다.

Q. 97개에 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에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던데 이와는 다른 것인지?

A. 그것들은 서울시 체육회나 협회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작은 규모의 센터를 말하는 것임.

□ 기관방문 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스포츠 사무국은 NSW주 정부 산하에 있는 실무 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NSW주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호주는 82%로 4위(한국 54.7%, 2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북유럽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순위이며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스포츠 사무국이 개발한 신체 활동 단계 모형 FTEM은 크게 Foundation, Talent, Elite, Mastery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1개의 단계로 세분화되며 전 생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기준점이 되고 있음.



(그림) FTEM 모형

- 일반적으로 한국의 체육 활동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FTEM 모형은 연속적 신체 발달과 체육 활동 수준 세분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과 역량 달성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은퇴 시기가 빠른 전문체육 선수들이 코치, 심판과 같이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임.
- 한편, 스포츠 사무국의 주요 사업들 중에는 여성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Her Sports Her Way는 여성의 전문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게 설립되도록 장려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여성을 위한 또다른 사업은 DADAE(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 Program)으로, 여아들의 신체 능력과 여성권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임.
- 스포츠 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아동기부터 사회적 편견,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체육 시설 등으로 인해 더 적은 체육활동과 낮은 신체 활동 기술을 발휘함.
 -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NSW주의 1,775개 시설 중 13%의 시설만이 여성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호주 평균 19%)
 - 유아 및 아동기의 남녀 신체 활동 횟수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아이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기술 숙련도 또한 남자아이가 크게 우세하였음.
-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시체육회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별 간 기회와 역량 차이가 클 수 있는 체육 분야에 있어 성인지예산 편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음.

4. 파라마타 시의회(City of Parramatta Council) [기관방문]

《 기관 개요 》

❖ 파라마타시 개황

- 위치 : 시드니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교외 지역
- 면적 : 5.3km²
- 인구 : 13만8000명(인구 밀도 3,730명/km²)
- 특징 : 유럽인들 정착하기 전 60,000년 이상 원주민(대력 Darug)이 거주, 유일하게 360도 어획량을 가진 항구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철도, 버스, 페리, 라이트 레일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며, 시드니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 중심 업무 지구로 성장하고 있음.

❖ 파라마타시의회 개황

- 의원선임방법 : 주민과 외부 거주자 중 부동산 소유자 및 세금 납부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 의원임기 : 총 15명(5개 구에 각 3명/ 여성 8명, 남성 7명), 4년 임기(2024년 9월 선거)
- 의 장 단 : 시장, 부시장(의원 중 선출)
- 위 원 회 : 8개(도시자산 및 운영, 도시 참여 및 경험, 도시계획, 디자인, 도시전략, 커뮤니티 서비스, 금융 및 정보 등)

❖ 홈페이지 : <https://www.cityofparramatta.nsw.gov.au/>

방문일시 : '23. 05. 25. (목) 09:30 ~ 10:30

방문장소 : Australia, Sydney NSW 2

방문목적

○ 코로나19 이후 상권 활성화 방안

○ 입법과 행정의 분리 여부 및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

면담자 : Sameer Pandey 시장 외 2명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Q. 심야영업 활성화를 위해 치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A. 전략적으로 가로등을 늘리고 있으며, 경찰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다.
- Q. 코로나19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가?
A. 시민 및 관광객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보도, 보행자전용 도로 등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 Q. 공원 내 푸드트럭과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A. 20년 동안 항구쪽의 식당가는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푸드트럭은 비비드 시드니처럼 행사가 있을 때 일정한 라인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 Q.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방문하셔서 배우길 권한다.
A. 서울시가 어떤 계획으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시킨 방안이 무엇인지 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 Q. 경전철의 경우, 한량에 몇 명이 들어가며 시드니에서 파라마타시를 통과하는지?
A. 시드니 중심업무지구에서 출발하여 파라마타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카멜리아, 웨스트미드, 시드니 올림픽 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동차 6개로 구성되어 한량에 300명을 수용하고 7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시드니 시민 및 관광객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Q. 파라마타시의회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가? 시장의 역할과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시와 시의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행정과 시의회 역할을 동시에 한다. 다만, 호주는 파라마타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주정부는 시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Q. 호주에서 다문화 국가 시민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A. 호주의 강점은 인구의 50%가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시민의 대표로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본인은 호주에 거주한 지 24년이며, 파라마타시의 경우도 80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각 지자체는 각 민족이 본인들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고 융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다.

□ 기관방문 사진

위원장 인사말	기념품 교환	파라마타시 담당자 설명
		
질의응답	질의응답	단체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호주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비자, 관리, 통신), 주정부(주류 및 도박 허가증 관리, 사업 보조금 지원, 운송), 파라마타시(레저 센터, 공원, 축제) 등 세 가지로 나뉘어 구성됨.
- 파라마타시는 총 4가지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첫째 20개년 커뮤니티 전략계획, 둘째, 10개년 자원 확보 전략, 셋째, 4개년 운송 프로그램, 넷째, 1개년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2023년 파라마타시는 2억 8천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4년 동안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사업을 시행함.
 - 새로운 수상시설과 보건 및 복지시설, 수상 레저센터 운영, 커뮤니티 시설 재활용, 리버사이드 극장 개발, 공원 및 도로와 보도 등 지역민의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집행됨.
-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인 파라마타시는 외국관광객이 2022년 33만명, 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에는 450만명이 방문한

곳으로 잘 보존된 문화유산을 통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들도 어려움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임.

- 파라마타시는 공원과 호수 등의 산책길에도 원주민들의 생활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관광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이 있음.
- 서울시는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이후 연차별 사업을 통해 누구나 한강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 연결로를 확충하고 도시와 한강을 연계하는 도보코스 개발과 보행의 확장 산책로를 조성하는바,
- 일반적인 트랙이 아닌 각 자치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과 문화해설사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파라마타시는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거 길이 강변 뿐 아니라 도시 중심 구역과 동네들을 연결하여 출퇴근과 동시에 문화유산 탐방도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음. 또한 계곡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각지의 호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길을 통해 자전거로 관광할 수 있는 체험상품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관광상품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음.
- 신축된 시청 건물 내에는 시민개방공간, 스타트 기업을 위한 랩 공간, 음반 녹음실, 도서관 등 복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시민 및 관광객 개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시민청, 서울관광재단,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등의 공간이 시민들의 이용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기 관 개 요 》

❖ 축제소개

- 2009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NSW)와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에서 조명쇼, 컨퍼런스, 음악 등 세 개(비비드 라이트, 뮤직, 아이디어)의 대형이벤트를 모아 만든 축제이며 올해가 13회째임.
- 23일(5/26~6/17)간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항구와 도심 내 관광지 및 중심가 빌딩에 조명예술이 설치됨.
- 호주 남반구 최대 규모의 야간관광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주민들을 위한 관광,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IFEA(International Festivals & Events Association)의 인정을 받았으며, 2022 IFEA Pinnacle Awards에서 14개의 메달을 수상했고, 2022 Australian Event

❖ 특징

- 비비드 푸드(Vivid Food)를 2023년 처음 도입함
- 예산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축제 행사 담당 부처에서 1/3, 나머지는 30여개 기업체, 기관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vividsydney.com/>

□ 방문일시 : '23. 05. 26. (금) 18:00 ~ 20:00

□ 방문장소 : Sydney Opera House, Taronga Zoo, Brangaroo, Darling Harbour, Luna Park 등

□ 방문목적

-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의 성공 사례를 직접 경험하여 서울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빛초롱 축제(2008년)' 와 '서울라이트(2022년)' 의 개선 사항과 서울시 관광 재건을 도모하고자 함.

□ 면 답 자 : 호주관광청 비비드시드니 담당자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Q. 비비드 시드니가 호주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개략적인 통계치 비율은?
- A.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큰 관광 축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시드니의 문화적인 매력과 랜드마크를 강조하는 이벤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비드 시드니는 방문객들에게 시드니를 방문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 관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Q. 축제가 상권과 주택가 등 혼합되어 개최되는 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 A. 비비드 시드니 축제자체가 대규모 이벤트가 현지 주민과 상점, 주택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소음, 교통혼잡, 주차 공간 부족, 공공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불편함이 발생한다. 다만, 축제를 주관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축제의 영향을 관리하고 현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환경 존중과 조용한 행동을 유도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 Q. 축제를 개최하는데 별도의 추진기관이나 운영기관이 있는가?
- A.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의 관광 및 주요 행사 기관인 Destination NSW (기관내의 비비드 시드니 이벤트 부서가 별도 있음). Destination NSW는 NSW의 관광 산업을 홍보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으며, 주요 행사를 조직하여 방문객을 유치한다.
- Q. 서울은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비비드 시드니 축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별도 있는가?
- A. 마련되어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다
- Q. 안내장, 티켓 모두 종이 아닌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대한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 A. 축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모바일을 통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에서도 지속적으로 QR코드로 확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에 앞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 Q. 축제의 특성, 장소의 정체성, 축제의 주제 및 컨셉을 정하는 방법은?
- A. 축제는 조직위원회에 의해 주제 및 컨셉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현재의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문화적인 이슈, 인간의 경험 등을 다루는 주제를 선택하며, 참여 아티스트와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컨셉이 구체화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축제가 시드니의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빛, 음악, 아이디어의 융합: 비비드 시드니는 빛의 설치 작품, 음악 공연 및 강연과 같은 다양한 예술 형식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축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을 선보이는 플랫폼이며, 시각적 및 청각적으로 매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2. 도시의 아이덴티티 반영: 비비드 시드니는 시드니의 도시적인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축제는 도시의 아이콘적인 건축물, 유명한 장소, 랜드마크 등을 배경으로 하여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며, 도시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킨다.
3. 창의성과 혁신성: 비비드 시드니는 창의적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격려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 형식을 도입한다. 빛의 설치 작품과 프로젝션 매핑 등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특성과 방법을 통해 비비드 시드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며, 시드니의 예술과 문화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발전시킨다.

Q.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할인, 전기요금보조, 설치비)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

A.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대규모 축제는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정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교통, 숙박, 식음료, 티켓 할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드니 지역 주민이라면, 해당 축제 기간 동안 대중교통 할인 혜택, 티켓 할인, 현지 상점에서의 특별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나 제휴 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현지 정부나 관련 단체는 특정 자원을 절약하거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Q. 매년 개최되는 축제으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겨두는 조명 조형물이 있는지?

A. 비비드 시드니는 매년 다양한 조명 조형물을 선보이는 축제다. 그러나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남겨두는 조명 조형물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축제의 예산 할당과 조형물의 선택은 각 회차별로 조직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예산, 참여 아티스트 및 예술가, 행사의 주제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조명 조형물의 유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축제의 장기적인 비용 관리, 환경 지속 가능성, 예술 작품의 유지 보수 등이 고려되는 요소 중 일부다. 조명 조형물의 재사용, 재활용, 기술적인 개선 등도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Q. 하이테크 조명, 영상, 음향 등 최첨단 기술이 선보이는 자리로 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이 별도 있는지?

A. 협력과 후원: 비비드 시드니는 기업, 스폰서,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감한다.

1. 기술 효율성 개선: 기술의 발전은 예산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축제 조명,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고해상도 프로젝션 매핑 기술, 소리 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작품 재사용 및 재활용: 비비드 시드니에서 사용되는 작품 및 설치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일부 요소를 수정하거나 다른 장소나 행사에 재배치하여 추가 비용을 줄인다.
3. 자원 공유와 협업: 비비드 시드니는 다양한 예술가, 디자이너, 기업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자원 공유, 장비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기관방문 사진

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오페라하우스 조명쇼	조명기기 보호	화장실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13회째 개최되는 비비드 시드니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로 정착했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개최됨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 뿐 아니라 시드니 주민들에게 관광,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혜택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병원 등과 같은 랜드마크 건물에 조명 설치물을 투영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공원에는 예술과 빛 설치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야외 갤러리로 만들어 야간관광으로 조성하고 있음.
- 다만, 행사구간의 대부분 건물이 관공서 건물로 인해 서울시와 같은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였음.
- 이에 현재는 DDP와 광화문 광장의 서울라이트와 한강 빛섬 축제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인바, 조각 형태의 축제보다는 구간을 확대하여 집중하고 서울라이트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빛초롱 축제는 비비드 시드니보다 1년 앞서 개최되었음에도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하는 한계점과 2022년의 경우, 광화문광장에서 추진되는 서울라이트와 연계하여 미디어파사드, 미디어 맵핑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조형물을 전시한바, 한지를 활용한 등이라는 소재의 활용과 축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비드 시드니는 차량을 통제하여 행사구간을 도보로 이동했는데, 노점상은 볼 수 없었으며, 각 상점들이 야외 테라스를 확대하여

도보 구간과 경계가 있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 이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는 노점상 운영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내데스크는 시작하는 구간에 있으며, 팜플렛은 안내용 하나로 구비하여 사진을 찍거나 QR코드로 인식하여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음. 구간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홍색의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활동하고 있었음.
- 이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도 팜플렛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과 지도를 인식한다면 서울수도 환경적 책임과 자원 사용 효율성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현장방문]

《 현장 개요 》

❖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높이/면적: 1,189m / 11,400km²

❖ 개요

- 블루마운틴 산악 일대에 자생하는 유칼립투스 기름이 증발하면서 빛을 산란시킬 때 산이 파랗게 보인다는 데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명칭이 유래함.
- 대표적인 볼거리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6개 구역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카툼바(Katoomba) 지역의 에코포인트(Echo Point)에서 '세자매 바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음.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블루마운틴 산악지대(Greater Blue Mountains Area)라고 부르며, 블루마운틴 산악지대는 2000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음.
- 블루마운틴에서 산악트래킹, 캠핑, 헤리티지 워크(유산을따라 산책하기)를 즐길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여객 철도와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홈페이지:

www.nationalparks.nsw.gov.au/visit-a-park/parks/blue-mountains-national-park

방문일시 : '23. 05. 23. (화) 9:30 ~ 14:30

방문주소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s, NSW

방문목적

- 서울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등을 비롯한 수십 곳의 산악 환경 자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매년 4.4백만명이 방문하는 최고 인기 방문지로, 140km가 넘는 산책로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클라이밍, 과수원 체험, 동굴 탐험, 야간산책, 자전거 라이딩 및 대여 서비스,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의 우수한 ‘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기에 적합함.

□ 현장방문 사진

Scenic Railway	Scenic Railway	세 자매봉 단체사진
		
세 자매봉	에코 포인트	Scenic Flyway 정류장
		

□ 방문내용

- 이 중 ‘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s)’은 블루마운틴 관련 관광 산업체의 1/3이 위치하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eura-Katoomba 구역이 위치한 곳이기도 함.
- Katoomba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상품은 블루마운틴의 절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3가지의 이동 루트 ‘Scenic’ 시리즈가 있음.

- 과거 블루마운틴의 광부들이 이용하였던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궤도열차 ‘Scenic Railway’ 는 250m의 수직 절벽을 오가며, 블루마운틴만의 역사성과 체험적 재미를 선사하고 있음.
 - ‘Scenic Walkway’ 는 2km의 블루마운틴 숲길을 걸으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잘 보존된 고유의 식생을 감상할 수 있음.
 - ‘Scenic Flyway’ 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케이블카로, 블루마운틴의 폭포 등 절경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게 함.
- 이처럼 관광 포인트에 따라 차별화된 이동 수단만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 같이 도심 속 산악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참고할만한 사례임.
 -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산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 하늘공원에 ‘서울특별시산악문화체험센터’ 를 설립(’21.5.)하여 산악 문화 전시 시설과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운영하고 있고,
 - 서울관광재단 또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의 개관(’22.9.)이래 서울 등산관광에 대한 다국어 안내, 등산 물품 대여, 포토존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악 콘텐츠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 대부분 단순 트래킹이나 클라이밍 보조 콘텐츠로,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한 이색적인 체험 또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과 같이 각각의 산을 관광 콘텐츠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현장 방문

[현장방문]

《 기관 개요 》

❖ 방문지명 : 울런공(Wollongong)/

❖ 개 요

- 1947년 9월 12일 울런공 시가 형성되었으며,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시드니에서 90분 소요됨.
- 인구 40만, 면적 684km²
- 혁신, 건강,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
- 주요 관광지: 해변가(17개), 보타닉 가든, 등대, 난티엔 사원, 공공미술 등
- 주요 산업은 광업, 제철업, 어업, 관광업 등이며, 호주 최대의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BlueScope Steel)의 연고지임.
- 2021년 남반구에서 유일한 UCI(세계사이클연맹) 자전거 도시로 선정
※2022 UCI 로드 월드 챔피언십 개최(2022.9.18.~25.)
- 원주민의 언어로 '5개의 섬', '바다의 소리', '커다란 물고기의 향연'이란 의미
- 3만 년 전부터 우디우디(wodi wodi)라는 원주민이 살던 지역임.
- 자매도시 : 일본 가와사키, 중국 룽옌, 캐나다 노바스코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 홈페이지 : <https://www.visitwollongong.com.au/>

방문일시 : '23. 05. 25. (목) 14:00 ~ 17:00

방문장소 : Wollongong NSW Australia

방문목적

- 에코 및 생태관광, 체험관광, 치유관광 등 다양한 테마관광 설계와 친환경 ESG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모색
-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회복, 치유, 삶의 질 등을 주제로 한 웰니스(Wellness)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관련 조례 법제화에 활용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곳으로 해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스카이다이빙 등 스포츠 활동이 적합한 도시임.
- 울런공은 시드니와 인접해 있으며 시드니보다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공기가 청정하며 시드니 배후 도시로 각광받고 있음.
- 울런공은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던 도시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등 체류 인구를 유인하였으며,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립병원 확장과 민간병원을 추가로 설립함.
- 울런공의 공원에는 음식만 준비되면 취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말이면 야외에서 활동하고, 취식에 필요한 가스 및 물 공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공원이 지저분하지 않고 쾌적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었음.

-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모토 아래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관광산업의 경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는 율런공과 다르게 도심형 웰니스 산업을 지향하여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힐링, 명상, 숲치유, 뷰티, 스파, 웰빙푸드, 요가를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관광재단은 의료와 뷰티 웰니스 관광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방치됐던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약 750조원이며 2025년까지 매년 20%씩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웰니스산업의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접근성 및 편의성으로 웰니스 대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의료시설과 높은 수준의 의료진, 뷰티산업, 바이오산업을 통한 토탈케어로 웰니스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3. 시드니 현대미술관(MCA)

[현장방문]

《 기관 개요 》

❖ 방문지명 : 시드니 현대미술관(MCA)/ 무료전시

❖ 개 요

- 비영리 독립 단체로 수익의 75%를 정부가 아닌 개인, 신탁, 재단 등에서 조달함.
- 서큘러 키 동쪽 록스인 시드니항에 위치, 총 2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 영국이 처음 호주에 도착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역사적 장소에 건립됨
- 뮤지엄샵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내부가 다 보이고 로비 옆에 위치함.
- 2012년 완공(건축가 Sam Marshall) : 건물은 기존 호주 해양청(1930년)이 사용하던 것을 1991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했으며, 이 건물은 전면 보존한 채 오른쪽에 현대적 느낌으로 유리와 샌드스톤을 사용해 5층 높이로 리노베이션함. 과거 폐쇄적인 양식의 건축물에서 유리로 개방적인 느낌을 준 게 특징임.

❖ 홈페이지 : <https://www.mca.com.au>

방문일시 : '23. 05. 26. (금) 10:00 ~ 12:00

방문장소 : Tallawoladah, Gadigal Country 140 George Street The Rocks Sydney NSW 2000

방문목적

- 시드니 현대미술관의 우수한 미술전시 구성사례 및 관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장방문 사진

<p>안내데스크</p> 	<p>미술관 전경</p> 	<p>미술관 앞</p> 
<p>미술관 앞</p> 	<p>한국작가 작품</p> 	<p>작품 설명</p> 

□ 방문내용

- 기존 10달러의 입장료를 받던 미술관에서 1999년부터 임용된 엘리자베스 앤 맥그리거 관장을 통해 무료개방 되었고, 개인, 신탁, 민간, 기업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관장이 무료 개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익명의 소수 사람들에게 현대미술가를 알리는 게 어렵고 미술관의 홍보예산은 매우 적기 때문이며, 관람객이 원하는 시간만큼 전시관에 머무를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음.
-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6년 개정으로 기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신규로 추진중인 서울 아트위크를 통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작가대화, 기조연설, 심포지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함.
- 공연예술과 달리 시각예술은 개막식 당일까지 전시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알 수 없고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소수의 시민 혹은 후원자들에게 작품설치가 끝나기 전에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서 타겟팅하여 적극 홍보하는 국가를 사전 협의하여 미술관·박물관에서는 그 국가의 예술가 작품을 전시하여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전시기획으로 서울시의 호감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4. 시드니 록스(Sydney Rocks) 문화 유산지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 방문지명 : 더 록스(The Rocks)

❖ 개 요

-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서 30분 소요되는 코브(Sydney Cove) 서쪽에 위치한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
- 독특한 바위와 가파른 지형, 비좁은 집들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달동네임
- 1788년 영국의 죄수들과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대가 정착하며 만들어져 The Rocks라고 불렸으며, 1870년 이후 아일랜드인과 중국인, 가난한 이민자들이 살았음
- 록스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항해, 해상 노동자 및 해양 무역이 활성화됨

❖ 홈페이지 : <https://www.therocks.com/>

방문일시 : '23. 05. 26. (금) 14:00 ~ 16:00

방문장소 : The Rocks, Sydney NSW 2000

방문목적

- 호주 현지 문화·예술 공간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종묘, 한양도성, 북촌한옥마을 등 관광명소로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현장방문 사진

표지판	안내센터 및 상점	골목길 투어
		
록스 내 상점	록스 전경	록스 전경
		

□ 방문내용

- 록스는 1800년대 시드니 상업의 중심지로 차, 설탕 등의 교역이 활발했던 문화와 역사의 거리가 현재 예술작품 형태로 보존되어 공존하고 있음.
- 19세기 후반 정부는 록스를 고층 건물로 재개발하려고 했으나 로비스트, 노동조합, 시민들에 의해 제지되었고, 대부분의 건물이 사암으로 100년 이상되었으며, 호텔, 주택 및 상점가가 남아 시대적 감각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음.
- 록스 거리는 곳곳에 작은 갤러리가 조성되어 있어 음식, 볼거리, 쇼핑이 모두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켓이 열리고 있음.
- 풍납토성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문화유산 보호·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행사 권리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문화재 주변을 방치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록스의 경우, 사암절벽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레스토랑, 기념품샵 등 상권이 운영되고 있고, 한쪽은 건물이 건설되고 있었음.
- 이처럼 서울시도 문화재 보존과 발굴이라는 기조 아래 방치하기 보다는 그 지역을 활용하여 문화재와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수립 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호주 원주민 문화체험

[현장방문]

《 기관 개요 》

- ❖ 방문지명 : 바랑가루(Barangaroo)/ 도시재생프로젝트 우수사례
- ❖ 개 요
 - 바랑가루는 초기 식민지 정착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Cammeraygal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지역(컨테이너 터미널) 중 한 곳으로 22헥타르 규모의 수변 구역을 시민들의 공간(공원, 쇼핑, 레스토랑 등)으로 탈바꿈함
 - 체험 투어를 통해 시드니 하버와 주변 지역의 원주민(Eora Nation 씨족) 역사, 토착 호주 식물을 알 수 있음
 - 바랑가루 보호지역(Barangaroo Reserve/6헥타르)은 독점적으로 자생 식물이 있는 유일한 대형 공원으로 75,000그루 이상의 자생 나무와 관목, 수천 개의 사암 블록이 있음
- ❖ 홈페이지 : <https://www.barangaroo.com/>

방문일시 : '23. 05. 27. (토) 10:00 ~ 12:00

방문장소 : Sydney NSW 2000

방문목적

- 호주 원주민의 예술·음식·숙박 문화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각종 지역 맞춤형 축제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호주 원주민의 예술과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바랑가루는 수변 구역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강 관광자원화 및 새로운 선진 관광콘텐츠를 발견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원주민 바위 활용 설명	원주민 나무 활용 설명	원주민 도구 체험
		
원주민 도구 체험	원주민 설명 영상 시청	안내표지
		

□ 방문내용

- 원주민 체험은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40분가량 도보를 통해 그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 바위 등을 활용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으며, 가이드는 원주민의 후손만이 할 수 있으며, 주 정부에 속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시작한 원주민 체험은 초창기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이후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아시아권역 관광객의 참여가 많다고 함.
- 원주민 체험 외에 축제 여부는 주정부 지원이 적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을 개발하고 있음.

- 원주민의 경우, 언어가 없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한계로 인해 대부분 기록이 없고 문화를 잃어버린 상황으로 사냥법과 문화 등을 계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서울시는 도보관광코스가 44개, 해설사 223명을 운영하고 있는바, 자치구 내 지역에 문화재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지역 내 주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서울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 방문지명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개 요

- 1973년에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방법을 결합시킨 근대 건축물임.
- 시드니 항구 쪽으로 돌출된 반도의 끝의 뛰어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커다란 도시적 조형물로 2개의 주 공연장과 하나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들 장소를 덮는 서로 맞물리는 3개의 '조가비' 모양의 둥근 천장이 독특함.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프로젝트는 1957년 국제공모전에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에게 맡겨졌고 당시 동 설계안은 건축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설되는 데 총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예정된 기간보다 6년이나 늦고 당초 예산보다 10배를 초과했음.

❖ 주요활동

- 시드니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각종 극장과 전시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드니교향악단,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극단, 무용단 등의 주 활동지임.

❖ 홈페이지 : <https://www.sydneyoperahouse.com/>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4:00 ~ 15:00

□ 방문장소 :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호주의 대표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찰을 통해 디자인, 규모,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출되는 장점 등을 노들섬과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적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오페라하우스 전경	내부 설명	내부 설명
		
대공연장 앞	오페라하우스 안내센터	오페라하우스 기념품샵
		

□ 방문내용

-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 유료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시아권역은 30분, 영어권은 1시간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30분의 약식 투어는 내부를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작나무, 타일 등의 사용된 소재에 대한 설명과 5분 이하의 건축 개요를 보여주는 영상시청이 있었음.
- 공연장의 음향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2년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 교체하여 오페라하우스 내에서 공연하는 단체는 외부 음향을 렌탈하는 사례가 없다고 함.
- 또한, 대공연장은 좌석과 무대가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에 수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서울시는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한강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 노들 수상예술무대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체가 상이하고 대규모 공사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한강을 통한 특별한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시드니 하버 브릿지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시드니 하버 브릿지(Sydney Harbour Bridge)
- 길 이: 1,149m(아치 503m)
- 높 이: 134m

❖ 개 요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항구이자 도심인 시드니 하버에 위치한 하버 브릿지는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도심 전역에서 볼 수 있음.
- 1932년 개통된 하버 브릿지는 뉴사우스웨일즈 공공사업부가 건설한 강철 다리로 태평양과 맞닿아있는 파라마타 강을 가로지르고 있음.

- ❖ 홈페이지 : www.sydney.com/destinations/sydney/sydney-city/sydney-harbour/sydney-harbour-bridge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5:00 ~ 15:30

□ 방문장소 : Sydney Harbour Bridge, Sydney NSW

□ 방문목적

- 하버브릿지는 그 독특한 모양새로 인해 옷걸이(The Coat hange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도시 상징성을 지닌 교량 시설이며 단순한 다리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체육·관광 자원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음.
-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연결, 수상산책 등을 통한 한강의 이동성 확장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있어 세계 최고 랜드마크 중 하나인 시드니 하버 브릿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하버브릿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도시 경관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되거나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유람선 투어의 일부가 되었음.
- 하버브릿지의 아치 위를 오르는 액티비티 ‘브릿지 클라임 시드니 (Bridge Climb Sydney)’는 다리의 아치를 등반하는 클라이밍 체험을 제공하며, 루트별·가이드별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시간대별로 차등 책정되어있으며, 성인 기준 한화 약 25만원~36만원에 달하여 비교적 고비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설 이래 총 4백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쾌거를 거두며 ‘다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에 성공했음.
- 서울시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소재하고 있지만 차량 교통 기반 시설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9개의 한강섬 또한 문화, 관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변 보행로 확충 및 예술문화 공간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열기구 서울야경체험’, ‘한강 불꽃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의 수많은 다리는 한강을 총체적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연결체이자 주역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8.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Mrs. Macquaries Point)

❖ 개 요

- 미세스 맥과리 의자(Mrs. Macquarie's Chair Sydney)라고도 불리는 이 곳은 가장 아름다운 시드니 하버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하버 브릿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1810년 바위를 조각하여 만든 이곳은 당시 총독이었던 맥과리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부인은 이곳에서 맥과리를 기다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맥과리 포인트에서는 야외극장 '오픈 에어 시네마'가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영화와 시사회를 감상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www.sydney.com/destinations/sydney/sydney-city/city-centre/attractions/mrs-macquaries-chair-sydney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5:30 ~ 16:30

□ 방문장소 : 1d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는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시드니의 유명 전망 명소로, 로얄 보태닉 가든 내부에 위치하여 불꽃놀이 명소, 산책로 및 야외 영화 관람 등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매력이 가득한 한강' 을 목표로, 서울링 ZERO 건립,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전망카페 활성화,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한강변 조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시의 한강변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각종 프로그램·행사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미세스 맥과리 포인트는 시드니 달링 하버을 주 배경으로 하는 수변 조망 포인트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도시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시드니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한편, 서울의 경우 외국 관광객의 한강 방문 빈도는 12.6%(2019년 기준)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한강 수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등 한강 연결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스포츠, 이색 경험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음.
- 특히 노들섬은 재구조화를 통한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설립·수상예술무대의 설치·노을 조망 포인트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 방향성과 관리 방식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일관된 콘셉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의 경우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도시 스카이라인과 동시에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1,600석 규모의 오픈에어 시네마(Open Air Cinema)가 매년 1~2월(여름) 밤 개최되고 있으며 무려 26년째 지속되어왔음.

- 향후 이러한 야외극장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도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음.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 세인트 메리 대성당(Saint Mary's Cathedral)

❖ 개 요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영국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호주에서 가장 긴(107m) 성당으로도 잘 알려진 시드니 가톨릭 공동체의 중심지임

- 1788년 시드니에 정착한 영국의 죄수들을 위해 1821년 맥과리 주지사가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총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 건축은 1928년까지 약 100년을 소요하였음.

-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장식과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음

- 현재도 미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정숙히 행동해야 하고 의상을 단정히 하며 내부 취식을 자제하는 등 주의하여야 함

❖ 홈페이지 : <https://stmaryscathedral.org.au/>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7:00 ~ 18:00

□ 방문장소 : St Marys Rd,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방문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NSW주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치가 매우 큰 건물임.

○ 현재까지도 종교 예배가 행해지는 건물이 문화와 관광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서울시의 전통사찰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공생 공간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현재도 미사가 진행되는 종교 시설이지만 매일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의 성격도 띠고 있음.
- 내부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르간 연주회와 같은 음악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청 시 매주 1회 무료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템플스테이 지정사찰('23년 기준 13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있는데,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 서울시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가자는 76,025명으로 이 중 3분의 1인 25,732명이 외국인이었을 만큼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 여가생활과 관광객의 흥미를 끌고 있어 세인트 메리 대성당과 유사한 양방향적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이처럼 종교 문화 시설 및 건축물이 그 종교적·역사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단순히 역사성에만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이종환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공원,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서울시에 웰니스 관광 정책 도입 및 관계 기관 업무 협조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이 종 환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웰니스관광 관련 조례 제정안 발의 필요

- 웰니스 산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방향' 발표 후 탄력받기 시작하였고, 지난 3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배현진 의원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임.
- 호주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와 고급 스파, 휴양시설, 원주민 체험, 등 다양한 웰빙 체험을 통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음.
- 서울시는 양적·질적 우수한 시설과 인력자원, 접근성과 편의성이 용이하여 웰니스관광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니스관광이 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 지사와 관광상품 개발 및 협력 필요

- 호주사람은 아웃도어 인구가 많아 체육 관련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해외여행을 장기간 다녀오고 있고, 현대미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개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관광상품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2년 6개월 전에 계획들이 수반되고, 체육과 미술 등 전문적이고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관련된 정보 부족 및 각 기관의 협의 한계로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서울시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서울시 뉴딜일자리 또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어가 가능한 인재 양성과 각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문성호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공원,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도시 시드니와 그 소속 파라마타 지역에서의 관광산업 및 생활체육 생태계와 전문체육 양성 정책 비교 분석 -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 모색 - 올림픽 종료 후 각종 유휴시설물 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 모색 - 스포츠사무국, 체육대학 등의 스포츠 관련 다양한 육성방안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문 성 호 <i>문성호</i>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개인별 공무 국외 활동 업무 분장 분야 보고 후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을 첨부		
1. 파라마타 시의회		
<p>1) 파라마타는 1991년 11월, 서울특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시에 속하는 기초단체다.</p> <p>2) '패러매타(Parramatta)'라고도 지명을 부르는데, 이는 기원전 30,000년경부터 존재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다루그(Darug)인이 '물이 나오며 장어들이 사는 땅'을 뜻하는 자신들의 말인 '부라마타(Burramatta)'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p> <p>3) 1788년 시드니가 먼저 세워지고 그 이후 대영제국 직할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스(NSW) 행정 총독인 아서 필립의 정착에 의해 발견되어 농지를 개발하기 쉬운 강 하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시드니의 베드타운격인 도시인데 비해 파라마타 역 주변을 중심으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라는 넓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거주지에서 상권으로 오가기 쉽도록 도시를 가로지르는 초소형 경전철, 노면전차라 불리는 '트램'이 도시 요소를 통과해 파라마타 역을 향해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p> <p>4) 우리나라 기초의회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p> <p>가) '시장(우리로 따지면 구청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시민이 투표로 선출하거나 시의회에서 선출하거나. 단, 시민이 선출하면 4년의 임기를 보장하지만 시의원이 선출하면 2년의 임기만을 보장한다.</p> <p>나) 즉, 의회의 의장이 시장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는 어쩌면 영국의 입헌군주정 내각책임제 총리 제도에서 기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당 선자를 '로드 메이어'(Lord mayor)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를 직역했을 때</p>		

'총독' 혹은 '시민경'이나 '주 시장'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연방 영역의 주요 도시의 대표자를 대우하고자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의원이 아닌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산하의 기초의회 의장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초단체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지만, 지역구청장(Head, chief)도 아니고, 대표의원 또는 고위 시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하이 메이어(High mayor)'라고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면 역시 영연방 국가라 그런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직책에 비해 굉장히 멋진 직책명이 아닐까 생각함(여담으로 필자가 농담 삼아 말하는 필자의 직책명은 로마제국시절 시민들을 대표했던 직책명인 '호민관'이다. 광역 지역구 의원이니까 딱 알맞다고 생각)

다) 의원과 의장. 시장이 딱히 다른 복장이 없고, 그저 의원이라면 의회의 상징인 무궁화 모양 배지를 부여받는 거 외엔 큰 이점이 없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와는 달리, 시장은 '체인소 오피스'라 하는 금속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전부 금색으로 치장되었으며, 카지노 칩 크기의 동그란 토큰들을 얇은 체인이 두 줄로 연결된, 목주의 형태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는 파라미터를 상징하는 듯한 P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토큰의 아래에 세 줄의 체인으로 연결된 큰 토큰에는 파라미터 의회의 상징물인 듯한, 노 젓는 뱃사공이 새겨져 있다. 이는 시장을 멋지게 돋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에게 책무의 무게를 알게 해서 더 신중하고 더 깊이 고민하며 더 책임을 갖는, 일종의 노블레스오블리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대에서 지휘자에게 초록색 견장을 달게 하고 휘장도 달게 하는 것도 단순히 멋있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무게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어찌면 우리 서울특별시시장에게도 비슷한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순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그러한 휘장을 달고도 여비서를 성폭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라) 다인종 세계화 국가 및 도시이다 보니 외국 출신 귀화자의 피선거권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민)이라면 가능함을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전문으로 근거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비슷한 수준이나, 아무래도 다인종 세계화 국가이며 NSW와 시드니 역시 세계화 지역 및 도시이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닌 게, '외세에 충성, 복종, 성실을 맹세하였거나 외세의 신민 또는 국민인 자. 이 경우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헌법 제1장 의회 제4절

양원 제44조(결격)으로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명시하였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국왕인 영국 국왕과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를 향한 충성 맹세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기회를 엿본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소리 내어 읽어 보며 이를 통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는 생각이 든다.

마) 덧붙여 서울시 내에서 다인종 타국 출신자 '존 도우'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져서 '파티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로 출마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생각해보니 아직 우리에게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 동족상잔을 한 차례 치른 휴전국인 국가이며, 대한민국 전복을 바라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과연 다인종 타국 출신 후보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견해다. 실제로 영동포구 대림동의 중국출신 교화민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 선출직을 중국출신 교화민에게 바로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필자에게 한다면 필자는 반드시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이다. 필자가 공식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면 공식선거 후보자 등록 시 국기에 대한 맹세와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접수 의례를 만들까 생각했다.

5) 2023 파라마타 지역 환경 계획에 따른 유산보존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연 및 문화유산을 식별하고 보존 및 홍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대영제국 시절 형벌부대를 동원하여 식민지 개간을 시도했던 대항해시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 및 환경 보전 가치 신장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가) 하지만 이는 애초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한 이들의 후손이 바라보는 역사적 시선에서의 가치 신장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일본 제국에게 점령당한 치욕이 있는 역사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정책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파라마타에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옛 총독 관저, 구정부청사(Old Government House)가 잘 보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재건하고 일제강점기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이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들의 역사가 물론 대영제국 동인도회사 소속 모험가와 개척가, 사업가, 해군, 그리고 형벌부대로 식민지 개척에 동원된 수감자들이기에 딱히 거부감이 없겠지만, 본래 원주민과 그들의 후손 입장에서는 거북 할 유산이라 생각된다.

나) 또한 지역 환경 보존은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서울시내 풍치지구, 지금으로 말하면 자연경관지구와 비슷한 맥락을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역시 영토 크기의 차이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는 불필요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여 주거지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꿈꾸는 데 비해, 파라마타에서는 오히려 이를 강력히 보호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꽤나 흥미로운 점이다.

6)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생계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으로 상권 회복을 유도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금 다른 정책을 포함하였다.

가) 파라마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파라마타 시의회에서도 추진한 정책이라 차이점으로 소개한다. 이는 식당의 외부에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요식 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식당 내에서만 제한된 인원으로 방역 수칙에 맞춰서 영업을 해야 하는 제한에서 벗어나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식사함으로써 비교적 감염에도 영향을 덜 받는 영업방식을 이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래 이러한 요식업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식적으로 허가한 이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날씨가 따스한 날에는 오히려 이로 인해 관광 수입이 증가하는 등, 또 다른 트렌드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나) 단, 이는 서울시와 비교하자면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앞섰다. 사실상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서울의 경우 밀집형 상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이 가능한 사례가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이 더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가 무허가노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이기에 이를 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라 색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물 간 간격이 넓은 지역 혹은 산악 지역이나 한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크게 활성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나) 위의 가)와 비슷한데, 범칙금과 같은 자살한 과태료나 세금을 비교적 감면하거나 면제해주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보편 코로나 19 지원금보다도 소득세 또는 지방세나 토지세 감세나 면세를 주장했던 것을 보면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필자 역시 지원금보다도 감면세를 주장했기에 파라마타 시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제법 와닿는다.

7) 현재 파라마타는 상업 구역이 활성화된 베드타운이자 교통 요지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야식 문화와 같은 '야간경제(필자 가칭, 실제로는 Night time Economy라 부르고 있음)'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 가도 선진화된 문화라 생각한다.

파라마타 시의회가 역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배워가야 할 격이라 판단했다.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 등 적도권 열대국가에서는 야시장이 성행했으나 이는 해가 떠 있을 시간에 워낙 더워서 장사고 뭐고 할 수가 없으니 야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나) 파라마타 시의회는 이를 양성하고자 24시간 영업제, 교통인프라 구축, 손님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야간방법 강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야간방법 강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맛 좋고 질 좋은 식당이 있어도 우범지역에 있다면 발길이 가지 않는 법인 만큼 안전의 문제가 곧 발길의 첫 요소라고 생각한다.

8) 파라마타 뿐만 아니라 시드니 여기저기에 초소형 경전철이라 부를 수 있는 노면전차 트램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시드니 트램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인기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관광산업의 양성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파라마타의 경우, 트램의 산업 규모는 일반적인 지하철(전철)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생각보다 꽤 많은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속도는 일반적인 전철에 비해 그리 빠른 편은 아니고, 노선도 덜리치 힐, 사우스 이스트, 파라마타 선 세 가지뿐이지만, 이 트램이 시내 주요 장소를 돌아다니기에 수요가 보장된다고 한다.

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2008년부터 국토행정부고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나 현재 착공시기와 역사를 두고 뜨거운 감자가 된 경전철 사업이 있다. 물론 트램은 경전철보다도 작으니까 경전철과 달리 지상 노면에서 달리기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트램의 수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핵심은 경전철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 필자는 파라마타의 트램은 '이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트램에서 내려 멀지 않은 곳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장 편리하다는 점이 본받을 점이라고 판단했다. 확인해본 트램의 노선 중에는 페리까지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의 큰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선셋과 한강 르네상스 실현에 있어 '그곳을 쉽게 갈 수 있는' 요소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라) 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에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자해를 결심한 이가 트램 선로에 갑자기 뛰어

들거나 선로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물론 트램이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로에 뛰어들거나 트램이 들어올 때 드러누워 자해를 시도한다면 차라리 자기 집 옷걸이에 목을 매는 게 더 나은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 갈기갈기 처참하게 사지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웬만한 이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트램의 가장 앞부분 차량에 미국 서부 개척시대 열차처럼 배장기의 역할을 하는 특수 범퍼를 부착해 절대 선로와 바퀴 사이로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드니 올림픽 공원

1)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어진 경기장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공원으로, 2032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올림픽 유치 확정에 따라 그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될 아주 좋은 기회를 갖추고 있다.

2) 운영을 시드니 올림픽공원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로 비유하자면 서울시 내 관련 위원회나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각기 시설을 맡아 관리와 운영을 맡아 하는 것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이는 그저 명목상일 뿐이거나 명예직으로만 남는 직책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책에 대한 책임감 증진과 해당 시설을 발전시킬 전략을 구사하도록 유도하여 서로 간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 생활체육회 회장이 종종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도구화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체육회가 관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가능하므로 공정하고 발전지향적인 선거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 또, 필자는 목동빙상장 운영 위탁 민간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과 관리의 효율성에서는 장점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경제적인 이익과 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 해당 산업에 있어 큰 연관성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 체육시설을 시의 체육회가, 지자체 내 체육시설은 지자체 내 체육회가 각 종목 혹은 시설별로 나누어 책임지고 관리 및 운영한다는 점은 체육회의 발전도 꾀하고 시민들에게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3) 재미있는 점은 우리 상암 월드컵경기장처럼 본래 산업화와 같이 개발된 지역

으로 도살장과 벽돌 공장, 탄약 공장 등, 산업지대였다.

가) 산업지대인 탓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물론, 특히 산업폐기물 역시 즐비한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며, 이른바 쓰레기 산이 존재했던 곳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역이 늪과 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기에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되어 주변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도 모이는 장소였다.

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완전 탈바꿈하고자 하는 취지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박동하는 시드니의 녹색 심장'(Sydney's beating hreen heart)이라 명명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한 개발보다도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환경 재생산업이며, 지금 2023년에 들어서서야 유행하는 ESG와 같은 친환경 산업의 원조격이라 볼 수 있다.

다) "The winner is Sydney!"라고 외쳤던 올림픽 구호와 덧붙여 개최 당시 수자원과 환경 재생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개발하였기에 당시 시드니 올림픽은 'Green Game'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만남이라는 이유로 '냉전을 종식한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과는 다른 의미의 별명이다. 어쩌면 우리 서울 올림픽은 인간과 인간이 올림픽을 통해 정치적 총부리를 내려두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면 시드니 올림픽은 인간이 올림픽을 통해 자연을 향한 곡괭이를 내려두고 재생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실제로 경기장을 건설할 때 동식물 보호에 가장 의의를 두었다고 하며, 늪지대에 쌓인 쓰레기의 산에는 마이크로 분해 기술을 첨가해 완전히 흡수로 매립하고 풀과 나무를 심어 푸른 언덕으로 조성함이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암 월드컵공원과 비슷한 맥락의 친환경 재생사업의 예다.

마) 수자원 재생관리계획 역시 눈에 띄는 재생사업이다. 과거 영국 템즈강 재생사업의 노하우가 전해진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요컨대 빗물과 폐수를 우선 공원에 저장하여 모아둔 후, 이를 정화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벽돌공장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노천광산처럼 나선형으로 땅을 움푹 파 만든 공장부지를 활용해 빗물과 폐수를 모아두고 서서히 정화하는 작업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4)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되살려 올림픽 경기장과 그에 딸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실로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 이면도 존재한다.

가) 본래 부지에 있던 공장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가 개발되면서 그곳을 향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옮겨간 것이다. 절대로 그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시드니 올림픽 공원 계획에 의거 철거 및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도 비주류 지역인 서부로 쫓겨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나) 도살장은 냉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주거지역에 근접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열차 등 교통기술의 발달로 탄약공장 역시 시드니 지역에 가까이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직도 많은 건물이 석조건물인 탓에 벽돌공장의 수요는 줄어든 편은 아니나, 마찬가지로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부 개척지 혹은 흙을 얻기 쉬운 아웃백 사막지대 인근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다) 어찌 보면 이는 극단적인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코 해당 산업을 포기하고 자연을 재생한 게 아니라 해당 산업을 애초에 인구가 적거나 살지 않는 비주류 지역으로 옮김으로 자연을 재생할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국가의 영토가 굉장히 넓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만약 우리 한반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면 이동지에서의 큰 반발로 불가능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 한편으론 대영제국 시절 영국 국내에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싫어 식민지 개척 겸 수감생활을 의미 있게 하라는 의미로 형벌부대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 파견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면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땅으로 혐오 및 오염 요소를 옮겨서 주류 지역에서는 청결과 친환경, 재생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 노하우가 과거로부터 전수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필자도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 대표였다면 죄수들을 이용해 식민지를 개척하면 왓싸, 실패해도 죄수들이니 뭐 손해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 본다.

마) 결과적으로 친환경 및 수자원 재생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나, 이를 위해서 대체자원 개발이나 일회용품 근절 등의 캠페인이 아닌, 있던 시설을 비주류 지역으로 옮긴 후 진행된 것이므로 완벽한 친환경 재생산업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5) 6.4km²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부지를 토대로 그 중 2/3가 공원 공간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인다. 특히 메인 경기장인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ANZ Stadium)와 시드니 슈퍼돔이라 불리는 에이서 아레나와 같은 경기장이 공연장으로도 사용된다.

가) 실제로 2011년 11월 12일, 시드니 올림픽공원의 메인 경기장인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K-Pop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음. 소녀시대, 동방신기, 샤이니 등 당대 내노라하는 총 12팀의 K-Pop 스타들이 대거 출동한 그 현장에 2만여 명의 관객이 강타했으며, 오후부터 몰려들어 5시부터 시작되는 입장을 기다리는 등, 엄청난 열기를 보였다고 한다.

나) 상암 월드컵경기장도 이러한 공연에 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리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느껴지곤 한다. 그 이유는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방문 시 질의응답을 근거로 말하자면,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잔디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중장비가 장시간 동원되는 K-Pop 공연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정말 큰 행사가 아니라면 이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 시드니 올림픽공원 방문 시 면담해준 방문객 전담 해설사(Visitor Programs Coordinator) 산드라 에드거의 말에 의하면 시드니 올림픽공원 전반에 깔린 잔디는 모두 천연잔디이지만, 경기장의 활용과 효율을 위해 내부 잔디는 인조잔디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라) 사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할 경우 엄청난 국가 인프라와 세계적 명성도, 그리고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살린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폐회 후 경기장이 방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시드니 올림픽공원은 대다수 부지를 공원화함과 동시에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음이 돋보인다.

마)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 서울올림픽공원도 본래의 경기장 목적 외에도 공연장 화하여 개선한다면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그저 방치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한다.

6) 또한 공원 내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결국 나무와 풀을 베고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패널의 카드뮴 문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출력 편차 효율 등을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가)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양광은 한반도에 쏟아지는 태양광에 비해 조금 더 따갑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2020년 발생한 오스트레일리아 대형 산불의 여파로 성층권까지 연기가 치솟아 오존 구멍을 만들어낸 데 여파가 있다는 견해다.

나) 하지만 그만큼 태양광이 강렬하기에 태양광 발전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드니 시민들은 그러한 태양광 발전의 이득보다도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파괴되는 산림과 녹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이 각광받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서울특별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일조량에 대비 태양광 출력량이 적절하지 않아 날씨에 따른 출력 편차가 존재한다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이 극렬히 드러나고, 무차별로 파괴되는 산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셴다. 필자 역시 2021년 기준 국내 에너지발전량에서 10%를 에너지 효율로 계산해 전체발전량을 그만큼 전환하려면 우리 영토의 24%를 패널로 뒤덮어야만 한다는 결과와 2021년 전력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계절상 가장 강한 태양광이 내리쬐는 7월에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1.4%밖에 안 된다는 결과를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라) 시드니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역시 태양광 발전은 아직 대체자원으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이며, 무엇보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의 관계이며 친환경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다이슨 스피어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친환경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은, 가정용이나 소규모 기업소에서 충당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입감했다. 확실히 친환경을 논하면서 1차적으론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발전 효율이 가장 좋은 원자력 발전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다. 필요한 전력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라늄 없이 뭘 하겠?

7) 대형 경기장 외에 수상스포츠를 위한 경기장과 풋살, 무빙 바스켓볼, 크리켓 경기장에서는 방문한 때에도 여러 체육인이 경기를 즐기고 있음을 보았다. 산드라 에드거의 설명에 따르면 시드니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생활체육이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수상레저를 즐기기 쉬운 해안가에 도시들이 위치하였으며 평지로 이루어져 여러 스포츠를 즐기기 손쉬운 지형이 가졌음에 근거한다고 판단한다.

가) 약간의 변형 스포츠가 꽤 인기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농구의 변형 스포츠인 무빙 바스켓볼과 야구의 변형 스포츠인 크리켓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인도와 같이 영연방에 속해 있기도 하거니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영국 시민들이 즐겨 하던 크리켓이 그대로 전승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본래 올림픽 경기장이었으므로 올림픽 종목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체육은 물론 전문체육인 역시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내 여러 체육시설과 경기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바였다. 기왕 하는 김에 국제 공식 기준을 따라 경기하면 더욱더 스포츠에 몰입할 수 있고, 훗날 나타날 전문체육인 선수가 연습하기 좋은 환경도 이룩하게

되며 그들을 부르기 위한 관광상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최근에는 프로 서퍼들을 위한 실내 서핑장도 수영장 부근에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며, 서울 등지에는 이미 실내 서핑장이 구현되어 있음을 말해주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문체육인을 제외하고는 스포츠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한국인 유학생들이 보여 준 모습에서 근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깊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의 도시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유학을 보내냈더니 방에만 처박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나 주무르고 있었다는 소리인가. 맹모가 알면 큰일 날 일이다.

8) 여담이지만 큰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은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 큰 부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 조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탓인지 의외로 주차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했으며, 그마저도 까다롭다고 한다. 물론 지나다니는 차량도 존재하고 관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역시 운행 중이지만, 방문 시 길가에 세워둔 차량은 단 한 차량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주차에 관해 철저하다. 덧붙여 주차공간과 경기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드니 시민들은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녹지 보호를 위해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경기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존재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9) 메인 경기장인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앞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드니 올림픽공원 개발 당시 함께한 이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라 한다.

가) A, Ae부터 시작해 Zu까지 알파벳 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필자는 둘러보던 중 An열에서 우연히 김 안토니오(Antonio, Kim)를 찾았다. 그는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로 귀화한 한국인이거나 그의 후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김 안토니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 이름이 새겨진 알루미늄 명비 외에도 마치 크레인 사다리차 같은 구조물들이 경기장 외부를 따라 마치 망루처럼 서 있었는데, 이는 1896년 제1회 올림픽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당시 가장 최근인 1996년 26회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까지를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 봉화대라고 전해진다. 사실 필자는 이 구조물의 실체를 알게 된 뒤에나 끄덕였지, 저건 뭐하러 만든 것일까 하고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고민했다. 넓디넓은 공원의 시원한 전망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3. NSW주 스포츠 사무국

- 1)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모든 시민에게 생활체육을 보장하고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건강과 여가 및 그로 인해 얻는 사회적인 교감과 윤리에 대해서도 유도하는 정부 기관이다. 사실상 파급력은 파라마타 시의회보다 넓다.
- 2) NSW주 스포츠 사무국은 2020~2024 전략계획이라 하여 참여, 장소와 공간, 섹터 지속 가능성, 파트너십 및 투자라는 네 가지 중점 분야를 발표했다.
 - 가) 먼저 참여는 나이, 능력, 성별 또는 출신과 사회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활동적인 어린이(Active Kids) 및 맨처음 한바퀴(First La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올림픽경기장과 생활체육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지역 사무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장소와 공간이란 앞서 말한 참여라는 자발적인 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면에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도하고, 생활체육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지속적인 개발, 올림픽경기장의 운영과 발전, 기타 시설의 관리와 새로운 시설 개발이 포함된다.
 - 다) 섹터 지속 가능성은 야영지 캠핑이나 산악 등 강렬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및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하고, 때때로 격투기와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스포츠와 레이싱과 같이 극도의 안전을 요하는 스포츠의 관리와 규제도 포함된다.
 - 라) 파트너십 및 투자는 정부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파트너십 제공 기회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에게 스포츠와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말한 세 가지가 모두 원활하게 보장받으려면 민간보조금과 국가 예산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필수요소이다.
 - 마)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를 대입하자면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의 분업을 말할 수 있다. 특히 장소와 공간, 파트너십 및 투자는 관광체육국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참여와 섹터 지속 가능성은 서울시체육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시설을 각 체육회가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면 이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체육회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섹터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관광체육국이나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함으로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3) NSW주 스포츠 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에든버러 공작의 국제 수상 프로그램(Duke of Edinburgh International Award Program, 줄여서 DofE)'이 매우 흥미롭다. 이 프로그램은 NSW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14세에서 25세까지의 모든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NSW주에 대한 관리를 NSW주 스포츠 사무국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 전 국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 필립 공이 에든버러 공작이라는 점이 흥미로워 노벨상처럼 그가 시행해서 그의 작위명을 따 만든 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에든버러 공작의 국제 수상 프로그램은 에든버러 공작 필립 공이 주축이 되어 독일의 교육학자이자 '외향적인 경계'의 창시자인 커트 한, 영국인 중 에베레스트산 최초 등반 성공자라고 소개하는 존 헌트 경이 젊은이들에게 균형 잡힌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195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1958년 에드리언 컬루워스(Adrien Curlewis)경의 주도로 1959년 제정되었다. 이후 196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주가 DofE에 참여하여 수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매년 약 3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수상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DofE는 비정규 교육 및 학습의 조직으로 공식 인증 프레임워크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나) 여담으로 최초 등반에 성공한 영국인은 뉴질랜드가 영국령이라는 가정하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맞다. 하지만 그가 식민지 출신이어서 그런지(뉴질랜드 자치령은 1931년에 선포되었으나, 사실상 1986년에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져 완전한 독립 국가가 되었기에 등반에 성공한 1953년은 뉴질랜드가 완전히 자주독립국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시기라고 본다) 등반 원정대 대장이었던 당시 존 헌트 대령을 성공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결국 등반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 역시 영국 기사 작위를 서임 받음으로 '경'이라 불리게 되었는데도 영국 본토에서의 국군 대령 출신인 존 헌트를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성공자라고 소개한 것은 어쩌면 과대표장이 아닐까 생각했다. 물론 최초 등반자라고는 안 했으며 등반자를 지휘했던 원정대장으로서는 성공한 것은 사실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면 괜한 미움을 살 거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다) 1956년 영국에서 제1회 에든버러 공작상 시상식이 있었으며, 매년 증가해

영국 전역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을 넘어 전 세계 144개국에 퍼져나갔다. DofE는 영국 왕실 법인인 '에든버러 공작상(The Duke of Edinburgh's Award)'에서 운영하며, 실질적인 관리와 수상 홍보 및 스폰서와 조정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이 바로 '에든버러 공작의 국제 수상 재단(Duke of Edinburgh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이다. 또한 이를 후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청소년 봉사를 위한 전국 협의회'라 하여 'NCVYS(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Youth Services)'가 발족 되기도 했다. 즉, 영국 왕실에서 자금을 대고 법인이 운영하며 자원봉사 협의회가 후원하니 노벨상 못지않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든 격려주 및 축하주라 판단한다.

라) DofE를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가스아 수상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대통령 직속 가스아 수상위원회에서 운영하며, 대통령 직속 가스아 프로그램재단에서 관리하고 선정 및 조정하는 방식인데다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이를 후원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생각한다.

마) DofE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목표를 정해 수행해야 하며,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원봉사', 스포츠와 댄스 또는 피트니스 등 활동분야의 향상인 '신체',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기술과 개인적인 관심을 개발하는 '기술', 자국 또는 해외에서의 모험이나 탐험과 같은 '원정'으로 나뉜다.

바) DofE에 목표를 정하고 수행을 시작하면 주당 최소 1시간을 프로그램 수행으로 활동 및 헌신을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적당한 경험시간을 토대로 브론즈, 실버, 골드의 등급 체계로 수료하여 수상 되며, 골드 수상자는 5일 동안 집에서 떨어져 나와 타 참가자와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 숨겨진 목표 '주거'를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한 마디로 사회화 및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료생들은 깊은 성취감과 사회적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멋진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한다.

사)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시를 넘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

4) '아버지와 딸'이라는 가족 나눔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흥미롭다. 본 프로그램은 2차 성징이 오거나 혹은 오지 않은 딸과 그녀의 아버지가 짝을 이루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둘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수행 과제를 부여하거나 둘이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레크리에이션이 주된 내용이다.

가) 청소년 스카우트에서 잘 활용하는 '모자 캠프' 또는 '부자 캠프'와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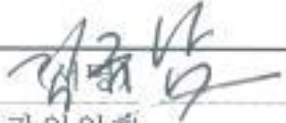
맥락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단, 우리나라의 모자 캠프와 부자 캠프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에 눈을 뜬 아들을 부모가 잘 이해하고 좋은 성문화를 이끌어주기 위한 척도로 이루어진다면, 본 프로그램은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이를 평생 함께 할 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나) 필자가 모자 캠프나 부자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무국 측에서는 '좋은 의견이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딸에 대한 이해이며 딸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유추하건데, 생각보다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직함에 큰 중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고, '하느님' 역시 'Father'라 표현하기에 아버지(Father)의 권위적 중함이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예상외의 답변이라 적잖이 놀랐다. 어쩌면 이는 서양식 페미니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다.

라) 프로그램의 개요와 주된 나눔의 목적을 보고 확실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달로 가족 간 대화가 사라져가는 지금, 이러한 가족 나눔형 레크리에이션은 사회화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 문화본부 또는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삭막한 도시 분위기를 걷어내는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어둔 거리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길 기원한다.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규남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문화재 보호와 도시재생의 현장 체험으로 풍납토성에 대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김 규 남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건

□ 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마련

- 시드니 내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더 록스'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의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100년 이상 된 건물 대부분을 보존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있었으며, 문화재가 그대로 드러난 채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된 '록스마켓'은 시드니 관광시 방문해야 할 장소로 홍보되고 있었음.
- 풍납토성은 1963년 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유산 보호·보존과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권리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며, 산발적인 공터 존재로 인한 골목 미관 저해 등 지역 슬럼화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권역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일부 구간은 성수동, 합지로, 망리단길과 같은 서울 핫플레이스로 조성하여 지역 슬럼화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풍납토성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 제정

- 풍납토성은 토지 보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을 방치하기보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과거·현재·미래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는 방안을 마련 해야함.
- 서울시는 풍납토성의 정책을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이효원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공원,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서울 관광 관련 활용 방안 및 신규 콘텐츠 모색을 위한 비교 시찰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이 효 원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한국관광공사 KTO 시드니] 서울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설치 요구 재고

- 서울관광공사에서 해외 지사 설치에 대한 요청이 그간 있었으나, 현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와의 논의 결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뿐만 아닌 지속적인 운영에서도 한국관광공사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해외 지사에 대한 서울관광공사에서의 현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의 제안대로 사무소 개념을 검토해 보거나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조를 통한 사무실 임대 등으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적합하다 할 수 있음.

□ [시드니 올림픽 공원] 보다 많은 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00시드니하계올림픽 이후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시드니 올림픽공원 내 개방된 녹지 공간, 스포츠 시설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전시회 및 이벤트 등을 관람하는 방문객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됨.
- 2000시드니하계올림픽 개최 이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함에 따라 올림픽 유산으로서 모범 사례가 된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달리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드니 올림픽 공원처럼 기존 대지에 더해 추가적인 건물을 건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나 최근 리모델링 추진 중인 잠실 주 경기장에 보다 많은 시민이 주기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지역민들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

- 호주의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는 건축물을 그 자체로 활용한 것과 더불어 오페라하우스가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 노들섬과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기능성과 활용성이 높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추후 특정 기능으로 활용되는 건물 이상의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가능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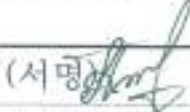
□ [비비드 시드니 2023] 건물의 특성을 활용한 보다 고도화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필요

- 시드니의 경우 비비드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모형의 건물에 그 건축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더욱 입체적이고 고도화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고 있었음. (아래 첨부 사진 참고)
- 우리나라의 경우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화제가 된 바 있고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를 진행하여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울빛초롱 축제와 서울라이트와 연계한 광화문 광장에서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의 콘텐츠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비비드 시드니에서 구현된 것처럼 여러 건물에 고도화된 콘텐츠를 구현해 낼 수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예산의 사용이라 할 수 있음 것임.

--	--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아이수루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공원,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호주의 비비드시드니 체험을 통한 서울시 야간관광축제 방향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아이수루 (서명 )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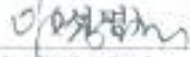
□ 야간관광축제의 방향성 재정립

- 서울시는 각 실국에서 추진중인 야간관광축제의 예산과 주제는 각각 다름. 하지만 비비드시드니는 Vivid Light, Vivid Idea, Vivid Music, Vivid Food 등 축제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 뿐 아니라 파생되는 접두어 'Vivid'를 붙여 단어의 느낌과 이미지가 시드니의 도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조각처럼 분산되어 있는 야간관광축제들의 방향성 재정립을 통해 축제의 컨셉과 콘텐츠가 서울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축제 방안 마련

- 비비드시드니는 일회성으로 단순한 관광 이벤트 축제가 아니라 정부(경찰, 소방관, 관공서 등), 공기관 및 랜드마크 시설(축제 참여 기관 및 시설), 관광업계(호텔, 식음료), 유통업계(쇼핑몰) 등 모든 것이 일관성 있는 슬로건을 유지하고, 판매 위주가 아닌 예술적 콘텐츠와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서울시는 일부 업계만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축제가 아닌 각종 박물관·미술관, 거리에술축제 등이 연계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이 서울의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축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이종배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서울시 체육 인재 양성 및 생활 체육 진흥을 위한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이 종 배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건		
<p>○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인구 대비 체육시설 개수는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로 평균보다 적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부족한 실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접근성)인 만큼 호주와 같이 접근이 좋은 지역에 체육시설을 보급할 수 없다면 셔틀버스 등 다각도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p>○ 호주는 호주체육위원회 2034년 비전 및 OFFICE OF SPORT 2020-2024 전략 계획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세부 사업과 단기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시체육회는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 단기적인 업무에 집중해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체육회도 법인화로 인해 독립성 등 다양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p>○ 호주체육위원회 및 체육 정부 기관 등 호주 내에 스포츠를 보급하는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생활체육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종 및 성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체육을 핵심 가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틀에 박힌 사업보다 다채로운 시민 참여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성인 남성 위주의 생활체육 참여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및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유·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인이 양성 될 수 있는 체육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의정활동 정책검토보고서(김원중 의원)

활동국(기관)	호주(한국관광공사(KTO)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공원, 스포츠 사무국, 파라마타 시의회, 비비드 시드니)		
활동 목적	서울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과제 발굴		
활동 기간	2023. 5. 22(월) ~ 5. 28(일) (5박 7일)		
활동자	성 명	김 원 중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 대표 야간관광축제의 선택과 집중

- 현재 서울시 야간관광축제는 서울빛초롱 축제,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DDP 서울라이트 등 여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호주의 비비드시드니는 운영주체가 주정부 관광청에서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열린 후원·협찬·협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고효율의 시너지를 발현하고 있었음.
- 그 중 서울빛초롱 축제는 호주의 비비드시드니보다 1년 앞서 개최되었음에도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각 축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단발적 이벤트에 머물지 않았는지 재점검하여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야간관광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SG 이념을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 도입과 첨단 기술 접목

- 비비드시드니는 2022년부터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내용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중 각종 홍보물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세계 최초 특허 기술을 접목한 앱 개발을 통해 빛과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음.
-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인쇄물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QR코드나 앱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VII

출장경비 정산내역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00만원(한도), 직원 1인당 400만원(한도) 예산배정

□ 소요예산 : 44,940,867원

구 분	청구액(원)	비 고
의원여비	22,711,073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12,879,794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1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합 계	44,940,867	

□ 산출근거

○ 의원 여비 : 22,711,073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비금(C)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소계(B)	일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비	
계	22,711,073	22,711,073	11,165,000	\$8,529.5	\$857.5	\$4,760	\$2,912	224,700
				11,321,373	1,138,177	6,318,039	3,865,156	
이종환	3,253,899	3,253,89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41,56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김원중	3,253,119	3,253,11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40,78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김규남	3,239,899	3,239,89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56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문성호	3,240,239	3,240,23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90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이종배	3,242,029	3,242,02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9,69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이효원	3,239,979	3,239,97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64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아이수루	3,241,909	3,241,90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9,57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1호 라목, 나등급)

◦ 국가등급 : 나등급(호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6식

▶ 기준환율 : USD 1=1,327.32원 ('23.4.13,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의원여비 지급 공문(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227, 2023.5.16.) 일비 단가 오류 : 139,369원 → 162,59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완료

○ 직원 : 12,879,794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비금(C)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소계(B)	일비	숙박비 (합인정액)	식비	
계	12,879,794	12,879,794	6,380,000	\$4,804 6,376,444	\$420 557,474	\$2,720 3,610,308	\$1,664 2,208,660	123,350
주우철	3,225,431	3,225,431	1,595,000	\$1,201 1,594,111	\$30×7일 ×50% =\$105 139,369	\$136×5박 =\$680 902,577	\$78/3×16식 =\$416 552,165	36,320
이지영	3,218,401	3,218,401	1,595,000	\$1,201 1,594,111	\$30×7일 ×50% =\$105 139,369	\$136×5박 =\$680 902,577	\$78/3×16식 =\$416 552,165	29,290
홍민지	3,216,401	3,216,401	1,595,000	\$1,201 1,594,111	\$30×7일 ×50% =\$105 139,369	\$136×5박 =\$680 902,577	\$78/3×16식 =\$416 552,165	27,290
임은덕	3,219,561	3,219,561	1,595,000	\$1,201 1,594,111	\$30×7일 ×50% =\$105 139,369	\$136×5박 =\$680 902,577	\$78/3×16식 =\$416 552,165	30,450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2호, 나등급)

◦ 국가등급 : 나등급(호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6식

▶ 기준환율 : USD 1=1,327.32원 ('23.4.13,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3항 및 제4차 직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권고(2023.4.24.)에 따라 직원 숙박비 및 식비를 제1호 등급으로 산정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차량 임차료 : 4,900,000원(6일)

- 전문가 간담회 수당 : 200,000원(2인)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일반통역비 : 900,000원(일반 통역비 150,000원 × 6일)

- 전문통역비 : 1,100,000원(기관당 통역비 275,000원 × 4개 기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 블루마운틴 관광 안내도

GRAND CIRCULAR TOURIST DRIVE

LEGEND:

- 1.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3.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4.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5.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6.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7.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8.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9.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0.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1.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2.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3.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4.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5.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6.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7.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8.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19.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0.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1.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2.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3.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24. Scenic Drive (Blue Mountains)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

WHERE TO EAT, STAY, AND PLAY

GETTING HERE QUICK FACTS

RAIL

SELF-DRIVE

WHERE TO EAT, STAY, AND PLAY ALL IN ONE AMAZING PLACE

Blue Mountains Tourist Information Centre

WWW.BLUEMOUNTAINS.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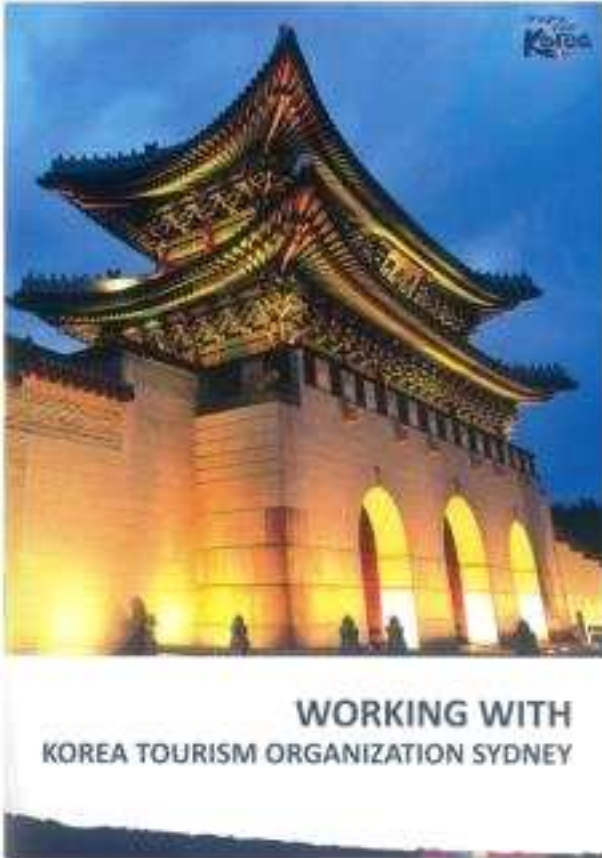
□ 블루마운틴 Skyway 안내서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2023년 공연 안내서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소개 책자



WORKING WITH KOREA TOURISM ORGANIZATION SYDNEY



WELCOME

South Korea is a friendly, welcoming and safe destination,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As an emerging Asian destination among Australians and New Zealanders, we highlight the depth of experiences available from the na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of South Korea to the food and seasonal offerings. South Korea has everything that attracts all ages and demographics.

As a part of this effort,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rade partners interested in selling South Korea tour products and services.

We have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our trade partners, so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us!

Thank you.

Korea Tourism Organization Sydney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visitors to Korea from all nations and business travelers. The KTO Sydney office is in charge of promotion to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market.

TRADE SUPPORT

Development & Promotion

- We provide up-to-date contact points of Korean DMOs, hotels and industry partners.
- We organize fair shows to introduce the latest and new tourism developments in Korea.
- We help you to create brochures dedicated to introducing your Korea tour products.
- We can give a subsidy for your Korea tour product advertisement costs.
- We can work together to run the co-promotion campaign to boost the sales of your Korea tour products.



Training & Education

- We offer an exclusive training program to help you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sell Korea products more effectively.
- We provide the latest travel updates about Korea through the Trade E-Newsletter service and the Facebook Group.



Marketing Resources

- We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digital images and travel guide books, maps, posters, etc., free of charge.



Join Our Facebook Group & Become a South Korea Travel Specialist!

Participate in our online training programs and receive up-to-date information on Korea tourism through our Facebook Group.

Member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member-exclusive events and programs.

South Korea Travel Specialist #NZ
www.facebook.com/groups/southkoreatravelspecialists/



CONNECT & KEEP IN TOUCH!

trade@visitkorea.org.au

+61 2 9252 4148



Level 18, Australia Square Tower, 266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NSW 현대미술관(MCA) 리플렛



MCA MEMBERSHIP

– Join today and unlock your creative side

Starting at \$50, connect with our like-minded community and receive year-round benefits and discounts.

- Free entry to all ticketed exhibitions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 Exclusive MCA Members' events, behind-the-scenes programs, exhibition tours, and more
- Access to the Level 7 Lounge
- 30–25% discount on MCA Kids & Families activities, workshops and more
- 10% discount at the MCA Store
- 10% discount on shows at Belvoir St Theatre and Sydney Symphony Orchestra*
- 10% discount at the MCA Cafe and GRAZE upon presentation of your membership card
- Recipient member benefits at partner galleries – AGNSW, MGA, NGV and GAGOMA
- Free subscription to the MCA's Art Matters magazine
- Free annual online subscription to Art Guide Australia
- Further offers from a range of businesses in Sydney

Need a gift? MCA Membership is perfect for yourself and your art-loving friends and family

Why do we need your suppo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is a not-for-profit organisation that raises 90% of its revenue through individual and corporate giving, as well as commercial activities.

Help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to deliver education and learning programs through the MCA Ambassador Program (2,500 subscription is tax-deductible) or leave a legacy by making a gift in your will.

Find out more [here](#) or [contact us](#)

1. Membership type

You Gift

Between Membership KE

2. Membership category (choose one)

Corporate \$500 Individual \$75

Donor \$250 Family \$350*

*Add for 1 additional free adult (up to 18) and under 18s (free) in office

3. Your Details

First name _____ Surname _____

Postal address _____

Work _____ State _____ Post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How did you hear about the program? _____

Secondary card holder details (Dual Family)

First Name _____ Surname _____

Postal address _____

Phone _____

Child's details (Family Memberships)**

First name _____ Sur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First name _____ Sur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hese prices do not include applicable tax and additional charges

A. Gift recipient's details (for gift memberships only)

First name _____ Surname _____

Postal address _____

Work _____ State _____ Post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Would you like the gift pack?

Sent to recipient Sent to you N/A see comment

Add a personal note for the gift recipient

B. Payment details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Card number _____ Expiry _____

Cardholder name _____ CVV _____

Add a tax-deductible donation to my Membership fee

Donation amount \$ _____

Signature _____

Office use only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Cash

Date _____ Month _____

Invoice # _____ PO # _____

Post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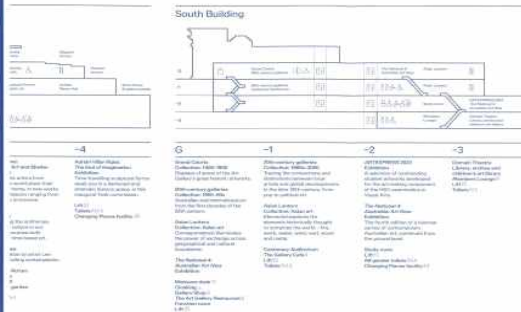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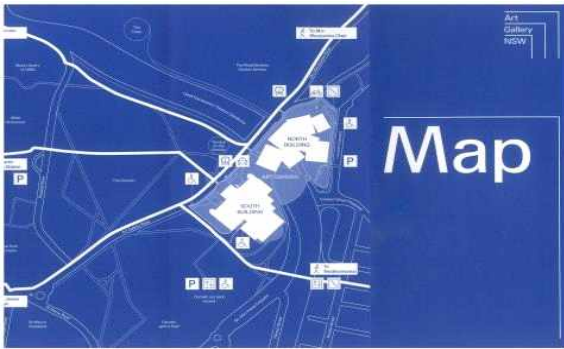
Get in touch

☎ +61 2 9230 8408

✉ members@mca.gov.au

🌐 mca.com.au/membership

□ NSW 주립 미술관 지도 등 안내서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information in other languages



For all other information including opening hours
www.artgallery.nsw.gov.au

On Gadigal Country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Art Gallery Road, The Domain
 Sydney NSW 2000 Australia
 +61 2 9225 1500
info@artgallery.nsw.gov.au
artgallery.nsw.gov.au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Visit our website for information on our access facilities and programs.

□ 파라마타 시의회 정책 홍보 리플릿



□ 시드니 올림픽공원 20주년 책자



□ 비비드 시드니 안내자료



□ 파라마타 시의회 기관 가이드 책자



AGENCY INFORMATION GUID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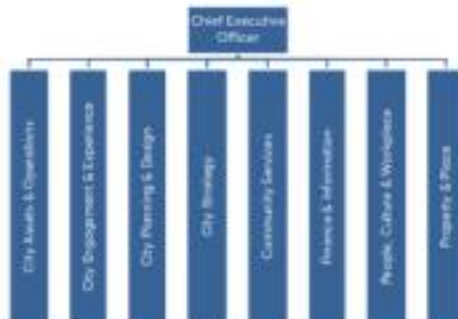
Agency Information Guide		
Mayor, Executive Services (Mayor Manager)	Agency Information Guide	Decision Authority (DD)
City of Parramatta (C/P/1/001)	File Number: 2022/0042	Date of Next Review: August 2022

The Lord Mayor presides at meetings of the Council, controls the civil and ceremonial functions of the office, exercises, in cases of necessity, the decision-making functions of the body public, between its meetings and performs any other functions that the Council determines.

1.4 Organisational overview

The Principal Officer of Council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s responsibl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uncil's organisations and for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decision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management of the Council.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delegated by the Council, the appointment, direction and where necessary, the dismissal of staff,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Management Plan.

To assis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n the exercise of these functions, there are 8 Directorates of Council. These Directorates are City Assets & Operations, City Engagement & Experience, City Planning & Design, City Strategy, Community Services, Finance & Information, People, Culture & Workplace and Property & Place. Each of these areas is headed by an Executive Director.



1. Structure and Function of Council

1.1 About the City of Parramatta

The City of Parramatta lies 24 kilometres west of Sydney's CBD at the heart of the Greater Sydney Metropolitan Region and has been home to the Ewring people for more than 60,000 years.

Covering an area of 44 square kilometres, Parramatta is located at the heart of Sydney's harbour, with hills and valleys to the north of the Parramatta River and the Cumberland Plain to the south.

Parramatta is the only Sydney city with a true 360-degree catchment. It is a major regional transport hub serviced by road, rail, bus and ferry, and accessible to approximately 2.3 million people by car or public transport within 45 minutes.

In recent years, Parramatta has continued to stand out in Sydney's Central City and second CBD – the economic capital of Western Sydney, Australia's fastest growing region. Between 2016 and 2018, City of Parramatta will welcome more than 96,000 new residents and 23,000 new workers to our City and neighbourhoods.

As more people and industries discover the advantages our region can provide, the City of Parramatta continues to build on its strengths as a hub of economic activity, essential services, natural assets, culture, and creativity. The success will benefit not just those living within the City of Parramatta but all of Greater Sydney,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generations to come.

1.2 Role of Constitution

City of Parramatta Council (Council) is constituted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1995 and was proclaimed on 21 October 1988. The Local Government Act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NSW and sets out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Councils and Councillors.

1.3 The Governing Body

The City of Parramatta is divided into 2 wards and is governed by a body of 8 Councillors who are elected by the residents and ratepayers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The role of the Councillors, as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is to:

- direct and control the affairs of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other applicable legislation
- participate in the approval/decision of the Council's resources for the benefit of the area
- play a key role in the creation and review of the Council's policies, objectives and plans relating to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s regulatory functions
-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Council and its delivery of services, management plans and strategic policies of the Council

The role of a councillor, as an elected person is to:

-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and ratepayers
- provide leadership and guidance to the community
-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Council

Page 1 of 8

1.6 Functions of the City of Parramatta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1995 (LGA), Council's functions can be group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SERVICE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sion of community health, recreation, entertainment and education & information services • Environmental protection • Waste removal & disposal • Land & property, industry & tourism development & assistance • Civil Infrastructure Planning • Civil Infrastructure Maintenance & Enhancement
REGULATORY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vals • Orders • Building Certificates and Insulation • Planning • Compliance
INCIDENTAL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umption of land • Provision of assets and equipment
REVENUE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tes • Fees & Charges • Betting • Licences • Long term financial planning
ADMINISTRATIVE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loyment of staff & HR Support • Management plans • Financial reporting • Annual reports • Community strategic planning, urban planning and response reporting • Risk Management • IT Support • Records Management • Access to Information • Administration of Council contracts including business systems & services
ENFORCEMENT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edings for breache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Regulations and other Acts & Regulations • Prosecution of offences • Recovery of rates and charges

서울특별시청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본인	지도교수
합격	합격
미합격	미합격

아이디	seoul1@seoul.go.kr	표절률	4%
주최	서울특별시청		
성명	김현보		

검사번호	00221603116	검사일자	2023.06.13 14:37
발급형태	<input type="radio"/> 기본보기 <input checked="" type="radio"/> 요약보기 <input type="radio"/> 상세보기	발급일자	2023.06.13 14:43
검사명	문체위 결과보고서		
문서명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직시험등 결과보고서(최종)_.hwp.x		
비고			

비고명리	[원래정부문서] [카피킬러 DB]
검사결과	표절기준 (8 이상), 인용/출처 표시문장 (해제), 명명/성명 포함문장 (해제), 독자/참고문헌 (해제)

본인	경도 의견
합격	
미합격	

지도교수	경도 의견
합격	
미합격	

분석 정보					
포장률	전체문장	동일문장	서립문장	연속/중거	행형/구분
4%	433	0	40	1	0

비교 문서 정보			
번호	포장률	출처정보	비고
1	1%	[카피킬러 DB] www.kissradio.co.kr - 해당명 : 2017년 2차 이달의 우수대중 프로그램 (한국콘텐츠진흥원)	
2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2017학년도 2차 중앙학교 교직원 워크숍 자료 - 저자 : 최재기 - 발행 : 20171220	
3	1%	[카피킬러 DB] www.kissradio.co.kr - 해당명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8회 운영위원회 ... - 영상보기 http://www.kissradio.co.kr > main > news > news	
4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2017년 1차 전국유관기관장 회의 및 대학 간 교류를 통한 교육 논의 - 저자 : 이영자 교육부 장관기 중4명 - 발행 : 20170522 - 20170528	
5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해당인종이나 지역별의 언어 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 저자 : 조윤정	
6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농업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선진사례 및 확산 정보화동향 조사 - 저자 : 이영자 농업특산진흥부 고정책 중3명 - 발행 : 20170522 - 20170528	
7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농업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선진사례 및 확산 정보화동향 조사 - 저자 : 이영자 농업특산진흥부 고정책 중3명 - 발행 : 20170522 - 20170528	
8	1%	[카피킬러 DB] www.ustr.gov - 해당명 : AUSTRALIA 27 (호스트레일리아) 20년 (11-20)	
9	1%	[카피킬러 DB] www.ustr.gov - 해당명 : 호스트레일리아 문화유적지	
10	1%	[카피킬러 DB] m.blog.naver.com - 해당명 : 호스트레일리아 문화유적지, 호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세아 하우스 ... - 발행 : m.blog.naver.com	
11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해당명 : 피트니스가 직원 건강을 통한 근무생산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 Google's plan for wellness services of Google Campus and Air Center by means of collaborating the roles of leisure managers - 저자 : 신원식 - 발행 : 해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정자치위원회, 2013.2	
12	1%	[카피킬러 DB] www.kissradio.co.kr - 해당명 : 시드니 여행 - 대표명물 오세아하우스의 카페모러지 4/18 - 발행 : kissr	
13	1%	[카피킬러 DB] www.kissradio.co.kr - 해당명 : 카페모러지	

14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황재하의 김포동 이숙이 재단장의 디스카버리채널 세팅 방법론 발표 : 네이버 블로그
15	19	[카피킬러 DB] www.senolle.com - 대상명 : 제29회 서울지방회의 제2차(2020.12.02)
16	19	[카피킬러 DB] www.senolle.com - 대상명 : 제29회 서울지방회의 제2차(2020.12.02)
17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주간 정기, 5/27(월) ~ 5/28(일) : 네이버 블로그
18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MVCCT] 발표회 '가임보장' 참석차 방문한 이랜드 (1-5/28)
19	19	[카피킬러 DB] www.senolle.com - 대상명 : 장성모의 한일장 - 발행 : senolle.com
20	19	[카피킬러 DB] CopyKiller - 대상명 : 디자인 사고 적용 분석에 관한 연구 : 네트워킹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sign Thinking Type Analysis : Based on Real Storytelling Theory - 저자 : 손승우 - 발행 : 2018
21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경기도 의정부에서 2020 에디터가 본지 1001 길이 에디터가 되길 2...
22	19	[카피킬러 DB] CopyKiller - 대상명 : 연구 결과 세를 중심으로 제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해사건까지 할당 방안
23	19	[카피킬러 DB] CopyKiller - 대상명 : 2016 세종시청 교육 연구학교 보고서 및 일련의 자료(대안교육) - 저자 : 인교성 - 발행 : 2016-11-10 17:02:55
24	19	[카피킬러 DB] www.senolle.com - 대상명 : '이공자님의 블로그' : 호우 조 농성문도
25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호우씨들의 D+4~7 시도나 코르코로로 자국을 떠날, 피싱은 왜곡이 세어 오일도 사할, 이호스대면, 본디이러게로아 이스미그 시도나우일도서전, 재인리제리대일일, 신간해용이 조전 날 - 발행 : senolle
26	19	[카피킬러 DB] www.blog.in - 대상명 : [호우 시도나 여행] 2016기 권력의 끝자 시도나 코레리 하루스 뉴데이 (Spice House) - 발행 : senolle
27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호우 시도나 3주간의 호우 주우 여행 1 - 발행 : senolle
28	19	[카피킬러 DB] blog.nate.com - 대상명 : [공유] [시도나] 권고의 불효인도, 사레스 매추리 효인도 Mrs. Margaret Paine - 발행 : senolle
29	19	[카피킬러 DB] CopyKiller - 대상명 : [서울특별시지회 관련]영국 등, 2014 - 저자 : 서울특별시지회 - 발행 : 서울 : 서울특별시지회, 2014
30	19	[카피킬러 DB] www.senolle.com - 대상명 : 에도우 영도 - 농성문도 18 시도나 - 발행 : senolle